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8월 1일
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09 호

불공·체험 ‘한마음 캠프’ 마무리

전국 사원 청소년 본산 총지사에서 진행

“아쿠아리움, 이유는 물고기가 귀여워서.”(김준호, 초5, 자석사), “롯데월드!! 친구들과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며 놀았어요.”(이윤서, 초5, 총지사), “유람선 타기,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 행복했다.”(백주희, 고1, 화음사)

‘총기 54년 불교총지종 한마음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2박 3일간의 여정 끝에 하루하루를 회상하며 소감을 남겼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본산 총지사에는 전국 사원에서 교도 자녀 초·중·고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캠프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오후 1시 총무부장 덕광 정사가 집공한 입재식을 봉행하고 조 편성과 숙소 배정 뒤 총지사를 둘러보며 생활 안내, 종단 소개, 불공법 교육으로 시작했다.

이번 한마음 캠프는 외부에서 진행한 예년과 달리 사원에서 진행됐다. 오전엔 새벽불공을 시작으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감성 표현 훈련, 공감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펼쳐지는 학교 밖 그룹 수업이 진행됐다. 오후 시간은 외부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과 우정을 맺고,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첫날 첫 프로그램은 ‘나만의 염주 제작’이었다. 법수연 전수(총지사 교화 스승)의 염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108 염주 알을 한알 한알 실에 꿰며 자신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냈다.

2면으로 이어짐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총기 54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날인 7월 16일 전국 사원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부산경남교구 합동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서 교구장 법일 정사가 봉행사를 하고 있다.

종/조/법/어

보시는 이타자리(利他自利)
염송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이니라.

지 면 안 내

10,11면 청소년 한마음캠프 화보
18,19면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화보

수험생들을 위한 **발 원 문**

100일 불공으로 수험생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삶의 바른길을 광명으로 밝혀 주시는 부처님!
이제부터 수험생들이 신명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자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너그러운 겸손과 끊임없는 정진의 힘을 갖게 하소서
잠시라도 무기력한 마음과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어할 때는 부처님의 광대하신 원력과 샘솟는 지혜를 본받아 지니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인욕의 마음과 깊은 선정의 힘으로 이겨 내게 하소서
잠깐이라도 좌절과 실의에 빠져 힘겨워할 때는 부처님의 금강석과도 같은 용기와 불퇴전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이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원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갖게 하여 그간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54년 8월 5일,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불교총지종

‘회당문화축제’ 울릉도에서 개최

통리원장 록경 정사 등 독도 방문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진각종이 개최한 ‘2025 제22회 회당문화축제’가 7월 23일 울릉도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통리원장 록경 정사와 재무부장 법선 정사가 공식 외빈으로 초청돼 참석했다.

행사는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2,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당일 오후 7시부터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에 앞서 록경 정사와 법선 정사가 포함된 축제 내외빈들은 광복 80주년 독도 특별 방문 행사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도형 종무실장, 진여원 정경 국원 등 50여 명은 오전 7시 20분 도동항을 출발하여 독도에 도착한 후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 수호와 한반도 평화를 발원하고, 일대를 돌아보며 독도 수비대를 격려했다.

한편, 회당문화축제에 동참한 진각종 스승과 신교도 등 지원자 중심으로 구성된 순례단 40여 명은 7월 23일 오전 8시 울릉도 여래심인당(주교: 법선 정사)에서 출발해 총지심인당(금강원, 주교: 경일 정사)까지 8.1km를 3시간 동안 순례했다.

저출산 종교인구 감소 등 대응키로

종단협 이사회…불교진흥 세미나 개최

불교계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저출산, 종교 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스님)가 7월 17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개최한 ‘2025년 제2차 이사회’ 참석자들은 오는 11월 ‘종교(불교) 인구 감소 시대, 불교의 미래를 묻다(가칭)’ 주제로 불교 진흥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9월 16~20일 한국불교 지도자 몽골 불교문화 교류 사업 진행의 건, 광복 80주년 기념 광복절 당일 회원 종단 소속 사찰별 타종식 진행의 건, 전국 사찰 신도 수 현황 조사 협조의 건, 10월에 열리는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회의 중국대회 참석의 건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금강신문

이날 이사회에는 부회장 통리원장 록경 정사와 이사 총무부장 덕광 정사를 비롯해 재적 이사 38명 중 33명(위임 8명 포함)이 참석했다.

1면에서 이어짐

이어 황보 작가가 ‘꿈을 찾는 여정’이란 주제로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작가의 경험을 담은 강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속 문장을 발췌하여 분단 별 이어쓰기가 진행됐다.

종이를 돌려가며 참가자들은 한 문장 한 문장 이어나가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 전개와 유머에 큰 박수와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했다.

수업 후 한강으로 향했다. 저녁 공양 후 유람선에 탄 참가자들은 서울의 야경과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를 한눈에 담으며 색다른 경험으로 특별한 하루를 즐겼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BMTI를 활용한 조별 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성격이 어우러지는 협력과 팀워크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원에서 점심 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로 향했다.아쿠아리움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생태계 흐름을 따라 거닐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라 360도 서울 전경을 한눈에 감상했다. 롯데월드에서는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기며, 캠프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다.

회향식을 앞두고 마지막 날 오전에는 2박 3일 간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반야심경』을 필사했다. 필사된 『반야심경』은 이름과 총지종 낙관이 찍혀 개개인의 액자에 담겼다. 이후 퀴즈 골든벨 OX 프로그램에서는 이민구(중3, 단음사) 학생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회향식에서 “모두 건강하게 마칠 수 있게 되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번 캠프에서처럼 언제 어디서나 웃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부모님께 보내는 엽서로 캠프의 생활과 소감을 대신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엄마 덕분에 여름 캠프도 갔다 오게 되었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태강, 중3, 시법사), “엄마, 단체 생활이 어색하지만 재밌다. 사랑해. 잘 지내고 목요일 날 보자.”(이태구, 중3, 단음사)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K-장녀 류세아가 되어 볼게요.”(류세아, 초4, 총지사) “아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 와서 호강해요. 저도 커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김희곤, 중2, 총지사)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대들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이재준, 중3, 실지사)

지혜의 눈

갈애(渴愛)의 경계

불교, 욕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
국가와 국가 간 갈등도 탐욕에서 비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동안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위의 두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이 한편으로 묶이고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이 다른 한편으로 묶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꾀하려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당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특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논외로 하고, 관련된 종교만 들면 통일교, 일본의 종교인 천리교와 일련정종, 기독교가 거론되고 있다.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흥종교이고 캄보디아 이권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는 특히 극동방송의 사주이자 보수적 기독교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김장환 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담임목사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가 무속신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과 법사라는 불교 호칭을 단 건진 법사란 인물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종교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매개로 불법적인 일에 개입했다. 특히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교리와 지향점이 다른 여러 종교가 개입된 것은 이해관계, 즉 인간의 탐욕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여러 종교를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貪慾)이다. 사실 불교처럼 인간의 욕망 문제에 깊게 천착한 종교도 없다. 불교 궁극의 이상인 열반(涅槃, Nirvana)은 본래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불교는 생애의 의지, 즉 근본적인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처님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강렬한 욕망으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는 욕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갈애(渴愛, tanha)는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듯이 하는 것을 말한다. 배고플 때 먹는 식욕은 당연하지만, 정도를 넘어 탐닉하는 경우를 갈애라고 한다. 그칠 줄 모르는 이러한 탐욕을 대표하는 것이 애욕(愛慾)이다. 이러한 갈애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기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여움, 즉 진(瞋)이 터져 나오고 당연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를 치(癡, 어리석음)라고 한다. 이 탐진치의 가르침은 불교의 욕망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이다. 이 욕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신구의(身口意)인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자동화가 이루어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21세기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의학의 경우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임상실험을 대폭 줄어들어 신약 개발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신약이 개발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아마도 평균 수명 백세시대는 21세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삶의 질을 논하게 되면 단지 수명만을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단순하게 탐욕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지만,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 탐욕 내지 갈애라고 불리는 것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주변을 무너뜨리는 갈애의 경계는 어디일까?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개의 경계 즉, 욕망과 탐욕의 구분은 수행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염불 수행을 선호한다. 옴마니 반메훔.

칼럼니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고통 바로 보는 지혜와 헤쳐갈 힘 주는 부처님 말씀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9. 종교와 인생관

사람은 누구나 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생에 대한 태도 결정을 인생관이라고 한다. 인생관은 인간 각자의 주체적인 것이므로 인간 개개인에 따라 형형색색이다. 인간은 자기 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그 인생관이 무자각 무반성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우의 일이다. 이러한 인생관은 비교적 무가치한 평범 내지는 저속한 것에 속한다. 인생관이 평범하고 저속한 것일 때 그러한 인생관에 입각하여 영위되는 인생이 무의의한 것으로 끝맺게 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사려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가치한 자연적 인생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인생관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구하려고 한다. 철학과 종교에서는 모든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관능적 자연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지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되므로 철학적 종교적 인생관은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도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생관 형성의 법칙으로서는 첫째 현실 파악, 둘째 생의 평가, 셋째 목적 설정의 삼단계의 구조를 말한다. 즉 인간의 존재란 어떠한 것인가, 다음에 인간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첫째는 인생의 실존성의 문제요, 둘째는 가치성의 문제며, 셋째는 목적성의 문제인 것이다.

전철을 타려고 지하철 계단을 걷다가 남들이 우르르 뛰어가면 덩달아 뛰게 된다. 놓치지 않고 타보겠다고 서두르지만 막상 다른 방향의 열차일 때도 많다. 횡단보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을 쫓아가다 뭔가 이상해 고개를 들어 보면 정지 신호여서 당황할 때도 있다.

다람쥐들이 밤나무 밑에서 놀다가 굵은 밤 한 톨이 떨어지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달려가니 이를 본 토끼며 사슴이며 늑대들이 무작정 같이 뛰었다는 우화는 맹목적인 우리를 꼬집는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 세상이 정한 대로 살아간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본 적 없거나 모르겠다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자니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고 이유도 모른 채 허탈하고 막막하다.

삶의 가치관은 많은 부분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 구부정하게 걷거나 모로 쪼그려 자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등 사소한 것까지 빼닮은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부자리부터 정리해라, 책상 치워라, 전기 좀 꺼라, 그렇게도 듣기 싫어했던 잔소리를 어느새 매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생물학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말투며 행동은 여지없이 부모를 닮아간다.

그뿐인가? 종교는 거의 대부분 집안의 분위기에 좌우된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부모의 신앙에 젖어 들게 마련이다. 정치적인 견해도 비슷하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어느 쪽을 열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자연스레 따라 배운다.

가치관이 보다 넓어지고 가

다듬어지는 건 학교에서다.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상을 만나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철학교육이 부재해 삶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할 기회는 별로 없다. 명언 몇 마디 주워듣는 게 고작이다. 종교교육 또한 단편적이라 자신의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도 적고 타인의 종교를 충분히 이해할 기회도 없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렇다고 인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의 가치와 지향에 대하여 고민해본들 답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종종 욕심 버리고 살자 하다가도 모든 게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나를 위하고 현재를 즐기자며 또 다른 헛된 욕심에 젖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급급했을 것이다. 파도에 휩쓸려 여기저기 떠밀리듯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을지 모른다. 많이 부족하고 때로 잊기도 하며 게으르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대 삼고 부표 삼아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가다듬을 수 있어 감사하다.

> “부처님 가르침을 등대와 부표 삼아 정신차리고 가다듬을 수 있어 감사”

부처님 가르침은 일단 고통을 바로 보는 지혜와 견디고 헤쳐 나가는 힘을 준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때는 원망하거나 피하기 바쁘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지니 고통 또한 곧,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억지 희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으로서 자신을 보라 했다. 번뇌와 고통을 유발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갈애와 집착을 끊으라 했다. 많은 경우, 붙들고 되뇌고 전전긍긍하느라 번뇌와 괴로움은 주어진 상황보다 훨씬 커지고 길어진다.

행복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다른 여러 요인이 뒤섞여 있음을 보면서 자만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인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지혜와 너그러움만 갖고 있어도 이 복잡하고 힘겨운 인생에서 엄청난 일 아닌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넌다”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우리를 구원하는 명약이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참구해야 하는 화두이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너무나 짧아 한낮의 꿈과 같다고 한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법문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은 시와 닮아서 멀리서 볼 땐 불가해한 암호 같지만, 이해해 보리라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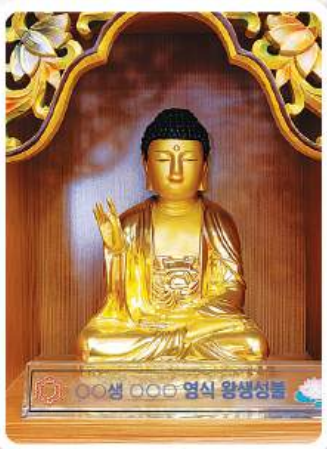
인생의 정답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의미를 찾고 가치를 만들어가면 그뿐이다. 다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에 서 있는 스승에게서 안개를 헤치고 갈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세상과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반야 지혜와, 해탈과 성불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다면, 꿈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인생길에서 그래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출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무명을 밝히고〉〈거룩한 만남〉
윤금선 BBS 구성작가

준	제	관	음	법		총	지	신	문
법		자		명	리	학			방
정	유	재	란			생	로	병	사
신		보		신	정	회			우
	포	살		미			연	꽃	
말			망	양	지	탄		상	
복	덩	이		요		소	구	여	의
	굴		근		이		구		기
모	나	리	자		광	복	절		소
	무		감	로	수		절		침

33면 가로세로 정답 ▶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왕생법문

우정이란 천금 보다 귀한 의리, 가장 아름답고 완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수한 관계와 인연 속으로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과 자식, 친구와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멀고도 가까운 인연의 사슬이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멀기만 했던 지방과 나라가 모두 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무연(無緣)한 것처럼 존재했던 세상 인연이 모두 유연(有緣)한 관계로 다가와 세상은 가까운 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싫어 먼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절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인간은 이 지상에 태어난 이상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이 인연의 질긴 사슬,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이란 한마디로 원인과 조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모여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인연이 모여 이룩된 온갖 현상은 독립자존(獨立自存)할 수 없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 또한 사라지는 것이 인연의 속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자법문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온갖 현상은 다 자업(自業)의 인연의 힘으로 하여 생겨나느니라. 이 인연이 시시각각 머무르지 아니하여 번개 빛과 같거니와 인연 탓으로 온갖 사물이 생기고 인연 탓으로 온갖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인연을 떠난다면 업보도 없으리라."

일반적으로 친구란 아주 오랜 기간 막역한 동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로는 '인생의 동반자'나, 나아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인연'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인간의 삶에는 삶 그 자체로 필연적인 인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중생은 늘 친한 것과 친하지 않은 것,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려서 자신의 업이 좋아하는 것은 친근하게 대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합니다. 그런 까닭에 온갖 사랑과 증오가 생겨나고,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등의 온갖 병폐와 팔만사천 번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중생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익만 따져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희생, 봉사, 자비, 인정 같은 아름다운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따른 편 가르기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 대신 편견과 오만, 독선이 가득하고, 남의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혈육의 정마저 쉽게 저버리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부모와 형제를 배반하고, 윤리나 도덕,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도 내팽개치는 패륜 범죄가 날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양하기 귀

찮다는 이유로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거나, 부모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형제끼리 칼부림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앞에서 '친구 간의 의리'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솔직히 현실감이 없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하천과 강이 오염되었다고는 하나, 깊은 산골 어디엔가 맑은 샘물이 남아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구하는 대로 어디엔가 맑은 샘물이 있듯이, 이 세상 어딘가에도 참다운 친구, 사람다운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이므로, 그 희망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정이란 '친구 간의 끈끈한 정'이라기 보다 '천금보다 귀한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사는 인류의 덕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우정이라고 한결같이 찬탄했습니다.

'의(義)'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올바름을 지키려는 정신으로, 인간이 지닌 가장 숭고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우정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달게 받아들이는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리란 이처럼 자기희생을 통해 상대를 이롭게 해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찍이 원효 대사께서는 "모두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수 있다면 성인처럼 믿고 존경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우정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멀리 달아나 모른 척하고,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한다면 진정한 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것이 우정을 이루는 첫 번째 도리라 하겠습니다.

참 우정이라면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내 일처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곤경에 빠졌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힘닿는 데까지 도우며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이 친구의 두 번째 도리입니다.

과거 일을 들추어 비난하거나 그 일로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친구의 세 번째 도리입니다. 실패했거나 불우했던 과거사를 들추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현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난 일로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친구의 장점을 칭찬해 용기를 북돋워 주고, 단점을 지적할 때는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사려 깊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친구 간의 도리입니다.

친하다고 친구 사이에 예의를 차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언사와 행동으로 선을 넘으면 그 우정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친할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친구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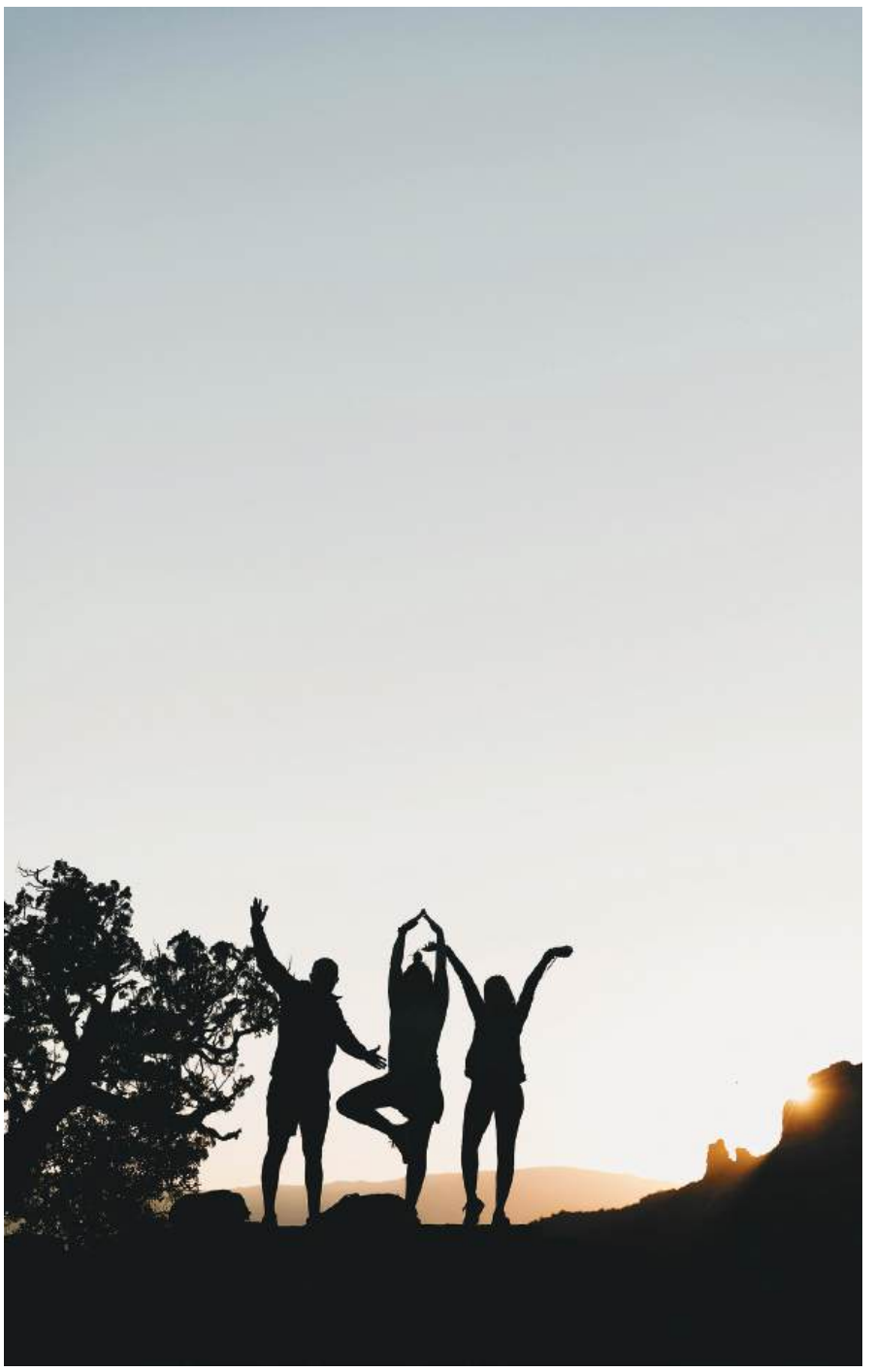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질고 착한 이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그릇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어질고 원(願)이 커서 능히 남의 그릇됨을 잘 분별하고 그치게 할 줄 아느니라.

둘째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니, 남의 이익을 보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남의 잘못을 보면 근심할 줄 알며, 남의 덕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의 악한 행위를 보고 능히 자신의 악을 구제할 줄 아느니라.

셋째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니, 남의 게으름을 방관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남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고 조용히 훈계할 줄 아느니라.



넷째는 이익되는 일과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이니, 자신의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공포로부터 구제하여 함께 깨닫기를 잊지 않느니라.

어떤 이를 악한 벗이라 하는가?

첫째는 두려움을 주어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이니, 먼저 주고 나중에 빼앗거나, 적게 주고 많이 바라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힘으로 친교를 맺는 사람 등이니라.

둘째는 감언이설이 많은 사람이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도 비밀이 많으며, 남이 고난에 처하였을 때 구제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는 사람 등이니라.

셋째는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기를 부리거나, 조그마한 허물을 큰 시빗거리로 삼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등이니라.

넷째는 덕이 되지 않은 사람이니, 술 마시거나 도박할 때, 음행하거나 노래 부르고 춤출 때만 벗이 되는 사람이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착한 이와 나쁜 벗을 각각 네 부류로 정의하시고, 착한 이는 가까이하고 나쁜 벗은 항상 멀리 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착한 벗인가 나쁜 벗인가를 살펴 착한 벗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밀교 연구·불서 발간·생활 불교로 창종정신 계승

총지종의 역사

제4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2011년~2021년)
01. 총지로 하나 되다

역대 종령의 가르침 계승

대성사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밀교 경전과 비교 검토하여 정밀성을 더하고 확장하기 위해 2014년 말 『종조법설집』 윤독회를 구성했다. 교구장이 추천한 정사와 법랍 10년 차 이하의 전수로 구성한 윤독회에서 10차에 걸쳐 연구검토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종조법설집』 연구모임을 다시 구성하여 대성사 가르침의 탁월한 밀교사상적 가치와 역사적·경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대적·자료적 한계와 표현을 보완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풍부한 『종조법설집』 발간을 준비 중이다.

2015년 1월에는 제3대, 제5대 종령을 역임한 환당 대종사의 입적 20주기를 맞아 법어집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 정토를』을 출간하였다. 원정 대성사를 보필하여 종단 창종과 발전에 기여하고, 법장원장과 중앙교육원장으로서 종단 소의경전을 비롯한 제반 서적을 편찬했던 환당 대종사의 주요 법어와 평소 법문, 그리고 틈틈이 기록해 놓은 유고 어록을 모아 올곧고 온화한 대종사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밀교서적 발간

종단의 상장례 의식과 수행의궤 안내서 제작이 이어졌다. 2012년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을 발간하고 2013년 『수행안내서-육자의궤염송』을 발간했다. 특히 『수행안내서-육자의궤염송』에는 종단에서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삼밀수행의궤인 육자의궤염송의 내용과 방법을 순서대로 수록하여 총지종의 핵심 수행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육자의궤의 순서, 방법, 의미뿐 아니라 총지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진언 수행의 목적과 공덕, 사원 예절을 수록하여 종단에 처음으로 입문한 초심자에게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했다.

창종 40년을 기점으로 훨씬 다양한 출판물을 선보였다. 2013년에는 관세음보살의 유래와 명칭, 신행의 의의를 정리한 『관세음보살예찬문』을 간행했다.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과 『천수경』을 수록하고 종단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중에서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게송을 원문과 함께 수록했다.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비롯한 각종 관세음보살 진언의 원어와 해설을 게재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번역 해석하여 이해를 도왔다.

2016년에는 불교계 최초로 각종 기도에 적합한 진언을 총망라한 『진언사경집』 16종을 발간했다. 밀교의 호마법에 따라 준제보살 진언에 의한 사종법의 서원진언을 기본 내용으로 싣고, 취업, 결혼, 임신, 병고소멸, 경제해탈, 업장소멸, 참회 등 기도 목적에 맞는 각종 진언을 한 데 모아 종류별로 제작했다. 종단의 염송의궤에 따라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진언, 준제진언을 순차적으로 사경하고, 사종법의 서원진언과 주제별 진언을 사경하도록 구성했다. 기존의 사경집이 대부분 경전을 중심으로 발간한 관례에 비춰보면 오로지 진언만으로 사경집을 발간한 사례는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진언염송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아온 종단으로서 염송 수행과 사경 수행을 겸할 수 있도록 해 수행의 방편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설법자료집을 꾸준히 발간하여 교화를 뒷받침했다. 각종 교리와 일화, 실생활에서의 수행법을 주제별로 선별하고 풍부한 예시를 더해 구어체로 서술한 법문 자료집 『불공과 설법』을 발간해 법회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새해 불공을 비롯해 여러 생활 불공에서 독송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을 발간하여 여법하고 장중한 불공 의식을 뒷받침했다.

새로운 불교서적 출판

불서의 주제도 불교경전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2012년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자경문>을 합본한 『초발심자경문』을 출간했다. 처음 불교 수행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현대적이고 유려한 문장으로 번역했다. 기존 『초발심자경문』 한글 해설서에 남아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경전 번역의 새로운 전례를 제시하고 종단의 확장된 연구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출가 종단 못지않게 도덕성과 계율 준수에 앞장서 온 종단답게 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 교육과정에 『초발심자경문』을 교재로 채택

사원의 문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신행 활동은 갈수록 활기를 더했다. 2015년 5월 수인사.

하여 승직자의 본분을 탄탄히 했다.

종단의 사상과 교의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2013년에는 국제 재가불교 지도자 포럼에서 발표한 글들을 모아 『생활불교 재가불교』(저자 화령 정사)를 펴냈다. 승·재가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모두가 동등하게 수행의 주체로 활동하는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종단의 남다른 철학을 일관되게 서술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재가불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사부대중으로 승가 공동체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가불자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본 계율인 오계를 철저히 준수하는 수행자상을 제시했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일상 속 수행자상을 확고히 하여 참된 불자상과 불교 교단의 미래상을 밝혔다. 재가불교 운동의 철학과 이념, 실천 방안을 정리한 『생활불교 재가불교』는 다음해 영문판 『BUDDHISM IN DAILY LIFE』로 발간돼 승속을 초월해 사회와 소통하는 진정한 대승불교철학과 한국 재가불교 운동의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총지종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발판이 되었다.

총지사는 2014년 5월 종합치유센터에 울림힐링센터를 개원, 현대인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장을 열어줬다.

생활과 불교가 하나 되는 사원

사원의 문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신행 활동은 갈수록 활기를 더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지역축제로 전환하여 일반인의 참여를 이끌었다. 찬불가 공연, 양반춤 공연, 피아노 독주,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연꽃 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부스 등으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마당을 제공했다. 전국의 사원은 봉축 법회뿐 아니라 음악회, 전시회, 연꽃 축제, 경로잔치 등 다양하고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교도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이 즐기는 문화 축제를 펼쳤다.

2000년대 들어 일반인을 위한 총지요가센터, 총지문화센터,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한 총지사는 2014년 5월 종합치유센터 어울림힐링센터를 개원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생존과 경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장을 열어줬다.

6월부터 상담과 진단 프로그램, 연극·음악·미술 등 예술 치유와 자연 치유 프로그램, 요가·태권도 등 심신 치유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등 40여 개 강좌를 개설했다. 이와 함께 기초명상, 요가, 힐링 춤, 세계 각지의 힐링 리더를 초빙한 국제 힐링캠프도 개최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자가라 스님의 명상지도가 큰 호응을 얻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각종 힐링 요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했다. 힐링 요법과 각종 프로그램의 과학적 검증과 개발을 위해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한성대 중독예방교육원과 연계하여 연구 활동을 병행했다.

정각사 역시 불교 교양대학과 요가교실, 노래 교실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사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2016년 정각사문화센터를 개원했다. 다도, 한국화, 합창, 스포츠댄스 등의 취미 교실과 경전 교실을 개설했다. 매년 지역 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다도, 스포츠댄스, 합창 등의 강좌를 진행하고 천 아트 등의 강좌를 추가했다. 다도 강좌 수강생으로 구성된 다도회는 사원의 신행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차 공양 봉사로 교도들의 신행을 도왔다. 이후 수강생들이 조각보를 만들어 판매수익금을 바라밀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특히 지역 봉사활동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각사 자비회는 1980년 7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래 60여 명의 회원이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모아 장학금 지원과 복지시설 및 예술문화단체 후원을 이어왔다. 매년 동해중학교 불교반 졸업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정하여 고등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바라밀지역아동센터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으며, 모자가정 돌봄센터 마리아모자원,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했다.

정각사에 자비회가 있다면 수인사에는 수인회가 있다. 2014년 개설한 사찰 요리 강좌는 수강하려면 몇 개월씩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강좌가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수인사 교도들과 강좌 수강생들이 힘을 모아 자원봉사단체 수인회를 결성했다. 수인회는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주 1회 무료 급식 지원과 월 1회 반찬 도시락 배달 봉사를 펼치고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도왔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단체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수인사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다.

2015년 5월 중앙동 자생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중앙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한마당 잔치'에서 수인회는 1,000여 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했다. 그해 7월 지역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수인사는 2016년 9월 21일 '수인사와 함께하는 꽃보다 할매 할배 효 잔치'를 개최해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매년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데 힘을 쏟았다.

사찰 요리 강좌로 시작된 문화강좌는 명상호흡, 민화, 기체조 등으로 확대되어 지역민의 인기를 끌었다. 문화센터 강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수강생 가운데 종단에 입문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교도가 느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원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교화해야 하는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웃음꽃 핀 청소년 한마음캠프

1. 캠프 회향 후 석별의 정을 나누며 총지사 앞에서 다같이 한 컷
2. 염주 한알 꿰고 수다도 한 번
3, 4 MBTI 수업 후 조별 발표
5. 밥도 반찬도 골고루, 즐거운 공양 시간

6. 형과 함께 하는 공부가 재밌어요.
7. 통리원장과 퀴즈왕의 염화미소
8. 롯데월드 구경 바빠도 인증샷은 필수
9. 대한민국 가장 높은 롯데타워에서 브이
10. 새벽 불공에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11. 한강을 가르는 유람선 선착장에서 찰칵

혜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⑤

금강계만다라-일인회一印會

일인회(一印會)는 상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로자나불을 가리킨다. 비로자나불 외에 어떤 불보살이 되었든 일존(一尊)을 모신 경우에 모두 일인(一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제불보살(諸佛菩薩) 가운데 일존을 선택하여 그 본존(本尊)의 형상(形像)이나 불화로써 조성한 것을 일인(一印)이라고 한다.

그 일존(一尊)의 일인회(一印會)를 대만다라(大曼荼羅), 혹은 대인(大印)이라 부른다. 대만다라는 만다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하거나 제불보살과 일존(一尊)을 존상(尊像)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일인회(一印會)를 대만다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제불보살(諸佛菩薩)을 총섭하는 일인(一印)이 존상(尊像)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인회(一印會)의 일인은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일체의 제존(諸尊)을 모두 총섭하고 있으므로 대비로자나불이며, 대인(大印)이다. 이 일인회(一印會)는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의 사인회뿐만 아니라 37존의 모든 불보살을 총섭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인회를 대만다라(大曼荼羅)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일인(一印)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것을 총섭한다. 또한 사종만다라의 사인회가 되고, 37존으로 확장하면 대만다라의 성신회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인(一印)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비로자나불의 존형(尊形)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비로자나불의 인상(印相)인 지권인(智拳印)이나 삼매야형인 보탑(寶塔) 등으로도 표현된다. 이 가운데 지권인은 금강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인상(印相)이다. 태장계만다라에서는 비로자나불의 인상(印相)이 법계정인(法界定印)이며 선정에 드는 결인이다. 지권인은 금강계의 비로자나불이 맺고 있는 결인으로, 양손을 금강권으로 하고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세우고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 쥐고 있는 인상(印相)이다. 오른손을 위로 두고, 왼손을 아래로 둔다.

이는 인도인의 전통적인 사고(思考)에 바탕을 둔 것으로, 왼손은 부정(不淨)의 의미, 오른손은 청정(淸淨)하고 바르다[正]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불교에서 왼손은 중생의 세계, 오른손은 불(佛)의 세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왼손의 금강권은 중생의 생명을 상징하며, 오른손의 금강권은 절대자인 법신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양손의 결합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성속(聖俗)의 합일(合一)을 의미한다.

사인회	일인회 ←	이취회
공양회	성신회 (갈마회)	항삼세회
미세회	삼매야회	항삼세 삼매야회

즉 중생이 불(佛)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권인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깨달음과 미혹이 일체라는 것을 나타내며, 중생이 무명(無明)을 없애고 지혜를 증득하여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지종은 진호국가 불공을 할 때 진언은 '옴훔야호사'를 하고 결인은 지권인으로 불공을 올린다.

일인은 지권인 외에 삼매야형으로도 표현되는데, 바로 보탑(寶塔)이다. 보탑은 금강계만다라의 삼매야형이다. 태장계만다라의 경우는 오륜탑(五輪塔)이다. 보탑(寶塔)은 연꽃 위에 옆으로 눕혀 놓은 오고저(五鈷杵)의 위에 올려져 있는 삼매야형이다. 보탑은 보리심을 상징하는데, 이를 풀어 설명하면, 깨달음(연꽃)을 얻기 위하여 굳건한 정진수행(오고저)을 행함으로써 구경에는 보리심(보탑)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혜광 정사(시법사 주교)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남혜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

룸비니 무우수 아래 '옴마니반메훔'

⑧ 탄생의 땅 룸비니

여섯째 날,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로 가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인도와 네팔 국경으로 향했다. 불교 8대 성지 중 한 곳인 룸비니는 이번 인도불교 성지순례지 중 유일하게 네팔에 있다.

부처님는 샤카족의 후예다. 히말라야산맥 아래, 오늘날의 네팔 지역에 있던 카필라바스투라는 도시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다. 석가모니는 '샤카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으로, '샤카무니(Śākyamuni)'를 한문으로 음차한 말이다.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며, 아버지는 숫도다나 왕, 어머니는 마야 왕비이다.

꼴리야족의 공주였던 마야 왕비는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친정에서 출산하는 당시 인도의 풍습에 따라 꼴리야족의 수도 데와다하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마야 왕비는 황금으로 치장한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자신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돈 뒤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친정집으로 향하던 마야 왕비는 룸비니에서 산통을 느끼고, 꽃이 만발한 살라나무 가지를 잡고 선 채로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부처님을 낳았다고 전한다. 마야 왕비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인도의 카스트 계급 중 왕족·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신분임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당시 브라만들은 카스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창조신 브라흐만의 정수리에서 브라만, 옆구리에서 크샤트리아, 다리에서 바이샤, 발바닥에서 수드라가 태어났다는 사상을 전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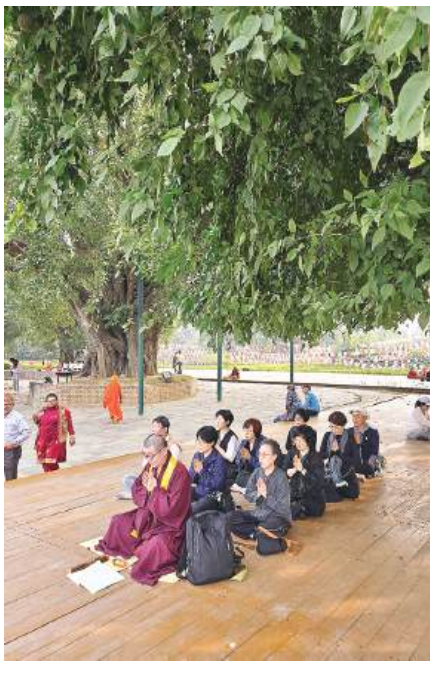
짙은 어두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인도와 네팔의 국경에 도착했다. 지루한 기다림과 여러 단계의 입국 절차를 거쳐 국경선을 무사히 통과한 뒤, 네팔의 마하데위 사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 마하데위 사원에 도착하여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신발을 벗어 한 줄로 입장하였다. 내부에는 부처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부조와 부처님의 발자국이 보관되어 있었다.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사진 기록을 남길 수 없었다. 마하데위 사원 옆에는 마야 왕비가 출산 전 목욕하였고, 출산한 후에는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연못이 있었다.

마하데위 사원.

마하데위 사원 옆에는 아쇼카 석주도 있었다. 석주 하단에는 "많은 신에게 사랑받는 아쇼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0년 만에 이곳을 찾아 참배하였다. 여기가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새우도록 했다. 위대한 분의 탄생지임을 기려 이 지역은 조세를 면제하고 생산물의 8분의 1만 징수케 한다."라고 글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글에 언급된 말의 형상은 벼락을 맞아 파괴되었다고 한다.

지루한 기다림 끝
인도·네팔 국경 통과

종단 의궤법 따라
부처님 탄신 축복
일체중생 해탈 서원



당나라 현장 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룸비니는 "이미 폐허가 되어 정글 속에 묻혀 있었고, 강도들이 득실거려 순례객이 찾기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룸비니는 1966년 우탄트 UN사무총장이 방문한 뒤 룸비니 개발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한국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룸비니를 둘러본 후 스승님들과 함께 살라나무 밑에 앉아 총지종 종단 의궤법에 따라 부처님의 탄신을 축복했다. 이 불공의 공덕으로 종단이 발전하고,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일체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서원하였다.

네팔에 왔으니 다른 지역도 더 둘러보고 흰 눈에 덮인 히말라야산맥도 보고 싶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룸비니 참배를 마치고 바로 국경을 넘어 인도의 다음 성지순례지로 향하였다.

부산 법성사 주교 남혜 정사

밀교법장담론

비슬산 용연사 보양 선사

달성 용연사 적멸보궁 정측면.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정측면.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용연사는 동화사(桐華寺)의 말사로 신라 하대에 창건되었으며, 15세기 이후 중창됐으나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고 다시 재건을 반복했다. 용연사는 통도사의 사리가 옮겨 오면서 금강계단이 조성된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사찰사료> 경상북도 편에 '용연사 중수비 서문[龍淵寺重修碑序]'이 전한다. 승지에 올랐던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이 지은 글에는 용연사가 소재한 달성지역 비슬산(毗瑟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부를 인용하면, "달성(達城, 현 대구) 남쪽 30리 거리에 비슬(琵瑟)이라는 산이 있으니 소슬(所瑟)이라고도 하는데 산스끄리뜨어로 '포(苞)'라고 한다. 신라 시대에 동쪽에서 온 천축 승려가 구경하고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비야(毗耶)'나 '지제(支提)'와 같은 말이지만 지금 상고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비슬'의 산스끄리뜨 원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맥은 '숲이 덮인 동산' 정도로 파악하는 것 같다. 비야는 불전에 나오는 비야리성, 지제는 불탑의 형식 가운데 하나인 짜이드야(Caitya)를 가리키는 말인데, 필자 생각에는 비슬과 유사한 원어는 '순수', 혹은 '적정'에 해당하는 비슈디(Vishuddhi)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공통점은 수행처에서 유추한 말이라는 점이다.

이어지는 비문에는, "또한 산의 동쪽에는 용연사(龍淵寺)라는 절이 있는데 골짜기에 신령한 용의 굴이 있었기에 이름을 지은 것이다. 혹은 신라의 보양 선사(寶壤 禪師)가 중국에 들어가 종남산(終南山) 지암 대사(智巖 大師)에게서 법을 증득하고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이 인보(印寶)를 받들었으므로 신인종(神印宗)이라 칭하였으니 동방 법문(法門)의 시조가 된다. 빼어난 땅을 골라 뽑아 용연사를 창건했다고 하는데, 그 뒤를 이어 폐해졌다가 일어났으므로 전적이 사라져서 고증할 수 없으니 탄식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삼국유사> '보양리목(寶壤利木)' 조(條)에 나온 것인데, 같은 조 다른 기록에는 보양 선사를 조사 지식(知識)이라 하였으며, 이어 "신라 말의 승려로 중국 당나라에 가서 법을 전수받고 돌아오다 용궁에서 금라가사(金羅袈裟)를 선물 받았다. 용왕이 일러준 대로 운문면(雲門面)에 이르러 작갑사(鵲岬寺)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려 태조(太祖)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 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다섯 갑(岬)의 밭 500결(結)을 합해서 이 절에 바쳤다. 또 청태(淸泰) 4년 정유(丁酉, 937)에는 절 이름을 운문선사(雲門禪寺)라 내리고, 가사(袈裟)의 신령스러운 음덕(蔭德)을 받들게 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이루어졌던 신인종(神印宗)의 개창과 관련해 두 가지 기록이 공존한다. 그것은 첫째는 개창조를 명랑 법사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보양 선사를 개창조로 삼는 것이다. <삼국유사> '명랑신인' 조에는, "우리 태조(太祖)가 나라를 세울 때 또한 해적이 와서 침범하니, 이에 안혜(安惠), 낭융(朗融)의 후예인 광학(廣學), 대연(大緣) 등 두 고승(高僧)을 청해다가 법을 만들어 해적을 물리쳐 진압했으니, 모두 명랑의 계통이었다. … 또 태조가 그들을 위해 현성사(現聖寺)를 세워 한 종파(宗派)의 근본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명랑 법사는 "법사 명랑(明朗)이 신라에 태어나서 당나라로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오는데, 바다의 용이 청해, 용궁(龍宮)에 들어가 비법(秘法)을 전하고, 황금 1,000냥을 보시받아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용왕(龍王)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佛像)을 장식하니 유난히 광채가 났다. 그런 때문에 절 이름을 금광사(金光寺)라고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신라의 고승들이 용궁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명랑 법사와 보양 선사는 유사한 이야기의 전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보양이목(寶壤梨木)' 조에는 보양 법사와 친분이 있었던 비허 선사[備虛師]의 기록이 있다. 같은 조에는, "석굴사(石굴寺)의 비허사(備虛師)와 형제가 되어 봉성(奉聖)·석굴(石굴)·운문(雲門) 등 세 절이 연접된 산봉우리에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했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다른 기록에도 비허 선사는 보양 선사와 친분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왕건을 도왔다.

용연사의 비문에는 보양 선사가 중국에 유학했을 때 지암(智巖 禪師, 600~677) 선사를 만났다는 것인데, 지암 선사는 당 태종 정관 17년(643) 건업 우두산 법융 선사(法融 禪師)를 만나 우두종(牛頭宗)의 2조가 된 인물이며, 이 시기는 명랑 법사의 활동 시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판단은 일연 선사가 <삼국유사>를 기록할 당시, 명랑과 보양 선사를 구분해 명랑을 신인종의 개조로 그 정통성을 두었지만 <조선사찰사료>에 보이는 용연사의 비문은 조선시대 신인종의 개조를 두고 언젠가 명랑 법사와 보양 선사를 혼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성준 | 자유기고가

밀교학 개론②

하나는 곧 전체요, 전체는 곧 하나
만법귀일萬法歸一 일생만법一生萬法

3. 정통밀교(正統密教)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 경전(經典)의 종류를 소승과 대승 밀교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소승(小乘)에 속하는 『장아함경』, 『장부경전』 중에도 『대회경(大會經)』과 같이 밀교적인 것도 있고, 팔리어 성전 가운데는 밀주(密呪)도 있다.

또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는 『법화경』은 다라니를 설했고, 본연부에 속하는 『방광대장엄경(普曜經)』도 밀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밀교적이라고 해도 밀교가 아닌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통력이나 주문(呪文) 등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類似) 밀교다.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조화(造化)하여 파악한다. 특수한 것 가운데서 일반성을 인식하고, 개개의 류(類)에서 실현(實現)한다. 개개의 인간은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인간과의 관련을 가지고 존재하므로, 이것을 밀교에서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고 한다.

또 인간과 자연계가 따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연계는 인간에 의하여 실현된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종속(種屬)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종속하는 것이다. 한 조각 풀잎에도 우주 정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밀교에서는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의 법신체(法身體)로 보고 육대연기(六大緣起)라고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 즉,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眞)'의 부정이 아닌 현실 긍정의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나는 곧 전체요, 전체는 곧 하나이므로 만법귀일(萬法歸一) 일생만법(一生萬法)의 원리에서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 하며,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事)와 리(理), 이사무애(理事無礙), 사사무애(事事無礙)의 사법계(四法界)가 그것이다. 인도의 대승불교는 중관파와 유식파의 이파(二派)로서 철학 체계를 수립하고 나란타 대학을 중심으로 번영하였으나 양파 모두 밀교에 귀착하였다. 즉 일즉일체(一即一切)의 완전한 조화의 세계에 이론적, 실천적 실현이다.

가장 비근한 본능적 무반성의 동물적 생활과 일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공리적 생활에서부터 윤리도덕의 단계를 거쳐 인간의식과 자연현상과의 발전 관계를 더듬으며, 소승에서 대승으로 고양하면서 최후에 절대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다. 따라서 밀교 가운데에는 가장 저급한 욕망과 가장 숭고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잡연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저마다의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조화를 구성하여 일대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잡음(雜音)이나 불조화음(不調和音)도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원시적인 생활로부터 가장 발달한 차원이 높은 사상과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도중의 모든 단계를 극복하고 절대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밀교다. 밀교는 인도불교에서도 중관파와 유식파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즉 소승 대승 모든 교의와 실천을 밟은 뒤에 비로소 밀교가 성립되는 것이다.

비유하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듯, 소승 대승의 모든 교의를 배우고 또한 실천한 자만이 비로소 밀교에 들어가게 허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밀교의 정통을 전해받은 우리 진언밀교에서도, 또는 티베트의 라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마교에서도 구사, 중관, 유식 등의 일정한 과정을 다년간 학습한 후에 비로소 밀교를 배우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밀교를 최상승(最上乘),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하는 것이다.

4. 밀교(密教)는 의궤(儀軌)를 준수하고 염송을 줄이거나 진언(眞言)을 남용(濫用)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존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불이 나던가 위급한 경우에 무의식(無意識)한 가운데 무거운 가재도구를 혼자 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 체력이 자기도 모를 정도로 잠세력(潛勢力)을 갖추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훌륭한 코치와 엄격한 훈련에 의해서 감세적(減勢的)인 체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적 조건인 바른 코치와 규율(規律) 있는 훈련을 위반했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이다.

정신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도 직업교육도 잠세적인 개인의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문자를 모르는 미개사회의 사람이 문자를 볼 때 이상하지만 알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아무 이상할 것이 없다. 평소 모르던 것도 시험공부를 할 때는 모두 기억해 버린다. 이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두뇌를 유효하게 사용하는 까닭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 방법을 쓰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연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력 개발에 그 방법이 잘못되면 불행을 초래하듯이(예: 입학체력장 시험에 심장마비 등) 정신력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층 더 위험이 수반된다.

밀교의 근본성전인 『대비로차나성불신변가지경(大悲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대일경(大日經)』 「밀인품(密印品)」에는 월삼매야(越三昧耶)가 엄중하게 금지되어 있다. '삼매야'라 함은 산스크리트어의 '사마야'의 음사로서, 이 원어는 정직, 약속, 규정, 규율이라는 뜻으로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국가의 법률도 모두 '사마야'지만 여기서는 불타의 서원(誓願)을 말한다.

밀교의 규정에 어긋나는 무자격자에 비법을 누설하면 '사마야'에 위배되어 월삼매야(越三昧耶)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열기(劣機)가 법을 듣고 감당하지 못하면 당자(當者)의 신체적 파멸은 물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미혹을 끼쳐서 법을 비방하기 때문이다.[예: 방불(訪佛) 수고(受苦)와 같은 예]

괴테의 시로 일례를 들면 '마술(魔術) 쓰는 제자'라는 것이 있다. 어느 날 마술사가 집에 없는 사이에 제자가 마술을 사용하여 빗자루에 물을 길어오라고 명했다. 빗자루는 냇가에 물을 길어오기 시작하여 물이 통에 차는데 그만하라는 주문을 몰라서 중지시키지 못하고 빗자루는 자꾸 물을 길어왔다. 제자는 다급하여 도끼로 빗자루를 두 토막을 내었으나 빗자루는 두 개가 되어 물을 배로 길어오니 집에 홍수가 났다. 제자가 비명을 지를 때 마술사가 돌아와서 중지시켰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원자력을 개발하여 그 이용에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는 많은 인간을 파멸에 빠뜨렸다. 정신력 개발의 가능성은 무한하나 선량한 바탕 위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자타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교는 항상 오대서원(五大誓願)을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

자료제공=불교총지종 법장원

챗GPT가 답하다 ③

시시불공 처처불공

時時佛供 處處佛供

시시불공 처처불공(時時佛供 處處佛供)은 "때때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곳곳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뜻으로, 일상 전체가 곧 수행이고, 모든 순간과 공간이 예경의 대상이자 수행의 자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해석 시시불공(時時佛供): 언제나, 매 순간 부처님께 예경(불공)함. 시간의 흐름 속 매 순간을 부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 처처불공(處處佛供): 어디서나, 모든 장소에서 부처님께 공양함. 공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수행하며 살라는 뜻.

해석의미와 가르침

1. 생활 속 수행.

법당 안에서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길에서도, 일터에서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위하고 말하고 생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밥을 지으며, 청소하며, 대화하면서도 그 순간을 정성스레 한다면 그것이 곧 불공이라는 의미입니다.

2.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불공.

불공은 단지 향과 촛불, 절만이 아니라 몸의 행동, 말의 공손함, 마음의 자비심이 모두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3.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불성(佛性)은 모든 중생과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부처를 모시듯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즉신성불, 자성불, 생활 속 수행과도 연결되는 정신입니다.

현대어 풀이

"때마다 불공하고, 곳마다 불공하라.", "모든 순간을 공경의 마음으로 살고, 머무는 모든 자리를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라." 이 표현은 선종, 밀교, 생활불교, 마음공부에서 자주 인용되며, 수행자의 자세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보여주는 매우 함축적인 불교 어록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5가지 방법

1. 하루를 시작하며 합장하세요.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합장하며 하루를 여세요. 이것이 첫 불공입니다.

2.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자비심을 담으세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도 부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말하고 듣는 것, 그것이 처처불공입니다.

3. 일상 속 행동에 정성을 담으세요. 밥을 짓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업무를 보는 것도 수행처럼 정성을 다하면 불공이 됩니다.

4. 마음이 흐트러질 때, 진언 한 마디로 중심을 잡으세요.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 등의 짧은 염불로 다시 불심으로 돌아오세요. 시시불공의 훈련입니다.

5.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하세요. 침대에 누워 "오늘도 불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불공은 향과 촛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향기와 자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불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시시불공, 처처불공하는 삶으로 자신과 이웃 모두를 밝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삼한담

'갈등'을 '차이'로 … '화합'의 시작

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헤어날 수 없는 형상을 문자화한 한자 말이다. 칡(갈=葛)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휘감아 돌아 오르고, 등나무(등=藤)는 나무를 왼쪽으로 휘감아 돌아 오르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치면 얽힐 수밖에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칡은 모습과 달리 인간에게 유익한 약재이다. 캐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수고와 먹는 사람의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 칡은 효능 있는 약재로서 훌륭하게 구실 하게 된다.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벤치에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넉넉함이 있고, 초여름 연자줏빛 꽃으로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일 터. 서로 헐뜯고 다투며 생채기 내기에 몰입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없고, 화합(和合)도 이룰 수 없다. 한순간만이라도 각자가 칡 캐는 이의 심성(心性)과 등나무의 후덕함을 닮아가려 한다면, 나와 너, 곧 우리 사이의 화합은 한결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화합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좋아하는 만큼 아끼고, 예뻐하는 만큼 솔직하게 표현하여, 최소한 서로에게 생채기는 내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상대로부터 미움을 되사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받침이 된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事物)을 바라보고, 상황을 통해 설득하는 타협(妥協)의 지혜(智慧)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자.

지역(地域)이건, 계층(階層)이건, 세대(世代)이건 간에 '갈등'의 코드로 접근하는 한 영원히 화해는 존재할 수 없다. '갈등'을 '차이'로 바꿔 인식하는 것만이 화합의 씨앗이다. '차이'란 바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평화의 키워드이다.

평범한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서는 '틀리다'보다 '다르다'라는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더 많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성급한 단정에서 불화(不和)와 갈등이 시작된다. '다름'의 차이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물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원뿔을, 한 사람은 위에서 보면서 동그랗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보면서 세모라고 말한 것과 같다. 서로의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시각(視覺)으로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관점이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불신(不信)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모두 듣지 않고, 중간에 성급하게 끊으면 생각의 '다름'을 알 수가 없다.

피터 드러커는 "내가 만일 경청하는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리더의 첫 번째 덕목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이다.

<탈무드>에는 "사람에게 입[口]이 하나요, 귀[耳]가 둘인 이유는 듣기를 말하기의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말 많고 갈등 심한 세상, 귀담아 듣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만 잘하여도 훨씬 조용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생명살림 경전이야기㉙
화엄경 제5권 세주묘엄품

모두의 빛깔대로 살 수 있는 곳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

이때 화장(華藏)으로 장엄한 세계 바다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그 땅의 온갖 것이 여섯 가지 열여덟 모양으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 두루 흔들흔들, 온통 두루 흔들흔들, 들먹들먹, 두루 들먹들먹, 온통 두루 들먹들먹, 울쑥불쑥, 두루 울쑥불쑥, 온통 두루 울쑥불쑥, 우르르, 두루 우르르, 온통 두루 우르르,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 두루 와르릉, 와지끈, 두루 와지끈, 온통 두루 와지끈이었다.

이 모든 세간 맡은 이들이 저마다 헤아릴 수 없는 공양거리 구름을 나타내어 여래의 도량에 모인 이들에게 내리니, 이른바 온갖 향과 꽃으로 장엄한 구름[一切香華莊嚴雲], 온갖 마니로 묘하게 꾸민 구름[一切摩尼妙飾雲], 온갖 보배 불꽃 화려한 그물 구름[一切寶焰華網雲], 그지없는 종류의 마니보배 둥근 광명 구름[無邊種類摩尼寶圓光雲], 모든 가지각색 보배 진주장 구름[一切衆色寶眞珠藏雲], 온갖 보배 전단향 구름[一切寶栴檀香雲], 온갖 보배 일산 구름[一切寶蓋雲], 청정하고 묘한 소리 마니왕 구름[淸淨妙聲摩尼王雲], 일광 마니 영락 바퀴 구름[日光摩尼瓔珞輪雲], 온갖 보배 광명장 구름[一切寶光明藏雲], 온갖 각별한 장엄거리 구름[一切各別莊嚴具雲]이니, 이런 여러 가지 공양거리 구름이 수효가 한량이 없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모든 세간 맡은 이들이 제각기 이러한 공양거리 구름을 나타내어 여래의 도량에 모인 대중들에게 내리어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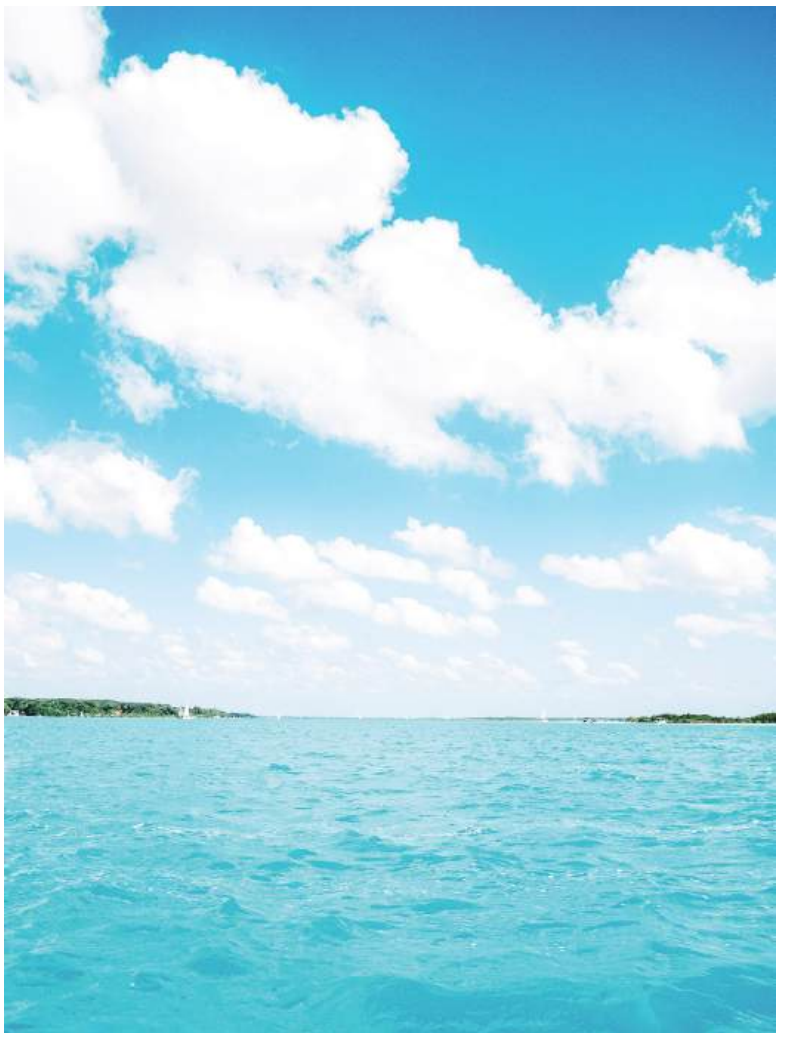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간 맡은 이들이 환희한 마음으로 이 세계에서 공양하는 것처럼, 화장으로 장엄한 세계 바다의 낱낱 세계에 있는 모든 세간 맡은 이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공양하였으며,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모두 여래가 계시어서 도량에 앉으셨는데, 낱낱 세간 맡은 이들이 제각기 믿고 이해하며, 제각기 반연하여, 제각기 삼매의 방편문이며, 제각기 도를 돕는 법을 익히며, 제각기 성취하며, 제각기 환희하며, 제각기 나아가며, 제각기 모든 법문을 깨달아 알며, 제각기 여래의 신통한 경계에 들어가며, 제각기 여래의 힘의 경계에 들어가며, 제각기 여래의 해탈 경계에 들어갔다.

이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에서와 같이 시방의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모든 세계해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 『화엄경』 제5권 <세주묘엄품>

『화엄경』 첫 품인 「세주묘엄품」이 1권부터 5권까지 설해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다. 이통현(李通玄) 장자가 지은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제1권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대(大)'는 어떤 방위도 없다는 뜻이요, '방'은 이치와 지혜로써 공을 삼는 것이며, '광'은 털끝과 세계가 서로 내포하는 것이요, '불'은 체(體)와 용(用)이 조작이 없는 것이요, '화'는 행문(行門: 실천문)이 즐길 만해서 이(理)와 사(事)의 공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비유한 것이요, '엄'은 의보(依報)와 정보(正報)로 장엄하는 것이요, '경'은 속내를 뚫고서 꿰매는 것이다.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이란, 보살이 생(生)을 나타낼 때엔 모두 세상의 주체[世主]가 되고, 다 같이 해회(海會)에 이르기 때문에 '묘엄'이라고 부른다. '품'은 같은 범주의 법문을 종류별로 모아서 격을 일정하게 한 것이다."



세계를 바다로 표현한 것은 바다가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세간 맡은 이들이 한량없는 구름을 공양한다. 구름은 무엇인가?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이 무리 3000을 이끌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고 하니, 이로부터 환웅천왕이라 불렀다. 이때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렸다. 농사에 있어 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구름이다. 그런데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생기는 것이 구름이다. 그리고 그 구름은 바람을 따라 이동하다 비를 내려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생동하게 한다. 비는 땅에 스며 지하수를 만들고 옹달샘을 만든다. 작은 샘물이 흘러 흘러 강물이 되고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바다에 이른 강물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든 다 하나가 되어 서로 경계가 없다. 이것이 자연의 모습이자 화장세계인 것이다.

인간도 이런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으며, 인간이 만든 세계도 역시 이와 같다. 농사짓는 농부가 있어 우리는 밥을 먹고, 옷을 짓는 사람이 있어 옷을 입고, 집을 짓는 목수가 있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과 탈 것과 그것을 만들고 이동하고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해 주는 시스템과 각각을 맡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의 조화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는 세계의 모습이 화장세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예전에는 스스로 했을 법한 일도 지금은 다 분업이 되어서 상호의존성은 더 커졌다. 수많은 이들이 각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모습이 꼭 바다와 구름과 비와 바람 같다. 그러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고 존귀하다. 만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했다면 그것은 나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존재의 인연 가운데 이룬 성취이므로 그것은 나만의 성취일 수 없다.

아마도 『화엄경』 「세주묘엄품」에서 '환희한 마음으로 이 세계에서 공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 싶다. 자연과 사람과 사회, 모든 것의 도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듯,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도 또한 소중한 존재이니, 나의 빛깔대로 나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나라의 평안과 중생의 해탈을 서원

전국 사원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총기 54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날인 7월 16일 전국 사원에서 봉행됐다.

특히 부산경남교구(교구장: 법일 정사)는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교구 합동으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우 정사(자석사 주교) 집공, 지홍 전수(단향사 주교) 사회로 교구 스승과 교도 350여 명이 동참했으며, 만다라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불심을 더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원당 본존을 그대로 모신 법단 위에 교도들은 나라의 안녕과 뭇 중생들의 해탈을 서원하며 정성스레 크리스탈 연꽃에 촛불을 밝혔다. 유가삼밀 의궤에 따라 진행된 법회에서는 법상인 전수(덕화사 주교)가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법어를 대독했으며, 법일 정사의 봉행사가 이어졌다.

법일 정사는 봉행사에서 "나와 가족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불공하신 여러분들은 고로부터 해탈하신 분들입니다."라고 치하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법어했다.

또 이 자리에서 법일 정사는 49일 간 나서서 애써준 각 사원의 회장과 총무들의 수고에 감사의 박수를 청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의 박수를 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법회 장소에서 다같이 공양한 후 운주사, 보림사 등을 순례하고 각 사원별로 교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는 이날 경기도 양평 용문사를 방문해 관음전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일성혜 기로스승을 비롯한 교도 40여 명은 이날 법회 후 용문사에서 공양을 마치고 인근에 거주 중인 성연주 교도 집을 방문해 내어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교도 간의 우의를 다졌다.

관성사(주교: 법선 정사)와 시법사(주교: 혜광 정사)는 7월 19일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를 각각 다녀왔다.

관성사 스승들과 교도 30여 명은 인천 강화도 보문사, 정수사, 전등사를 순례했다. 예로부터 불교계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 사찰 세 곳을 순례하여 자신의 액운과 죄업을 씻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삼사순례를 이어왔다.

시법사는 인천 영종도 예단포항에서 어류 방생법회를 열고 장어와 우럭을 바다에 놓아주었다. 이후 신라 문무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한 용궁사를 참배하고, 그동안의 불공 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했다.

박재원 기자

1. 부산경남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법회에서 합장의 예로 불공을 올리고 있다.
2. 발원문을 봉독 중인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류길자 지회장
3. 법회에 앞서 교도들이 일심으로 촛불을 켜고 있다.
4. 5 총지사 교도들의 불공 모습과 회향 후 용문사 관음전 앞 파안대소
6, 7 관성사 교도들이 삼사순례 중 정수사(왼쪽)와 전등사에서 기념 촬영
8, 9 시법사 교도들의 어류방생 후 용궁사 참배 모습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 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조법설집

제 2장 수행편 P.123

교우交友

신의信義로서 벗을 사귀고
어진 사람을 질투하지 말며,
강한 자를 겁 없이 제어하고
약한 자에게 자비하여 침해하지 말라.

지장 스님의 향유 _24
마음의 선율
__ 지장 스님

마음챙김 메커니즘 _26
마음챙김 ①
__ 임진수

문화유산해설 _29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
__ 편집실

지혜의 뜨락 _31
심원사 대종불사
__ 편집실

살다보면 _32
지화장엄(紙花莊嚴)
__ 이옥경

내가 사랑한 동시 _38
한정동의 '굴레 벗은 말'
__ 신현득

불교이야기

재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그대들은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건전한 사회의 기틀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훌륭하고 법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회 구성원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은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경제생활을 무시하고 마음만을 무조건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또 재산의 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훈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가자의 재산 운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직업과 훌륭한 기술을 배워서 방편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네 몫으로 나누되, 한몫은 자기의 생활에 쓰고, 두 몫은 사업을 경영하며, 나머지 한몫은 가난해질 때를 대비하여 저축해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재산이 넉넉한 장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몫은 이자를 늘려 가업을 번창시키고, 한몫은 매일의 가정 살림에 넉넉히 쓰며, 또 한몫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나머지 한몫은 일가친척이나 오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써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절약과 검소로 집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와 처자를 공양할 수 있게 되고 손님과 고용인을 돌볼 수 있게 되며 친족과 친구에게 베풀 수 있고, 임금과 사문, 도사를 받들어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불교에서는 무조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구하되 도가 아닌 것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 돈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쓰임새를 말씀하셨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게 보시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단지 약간의 편리함을 줄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하며 가엾게 여기어 그대들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비록 출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가신도도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궁극의 목적처럼 되어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결국 그 돈도 못 써 보고 죽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렇다고 벌어 놓은 돈을 무조건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재산을 나누어 적절하게 쓰되, 보시 또한 꼭 염두에 두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절약과 검소로 다스리라

미국의 유명한 재벌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55세에 불치병에 걸

려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 걸린 액자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이상하게도 이 글귀를 보자 전율이 흐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삶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입원시켜 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입원비 수납이 먼저라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입원비가 없는 듯했습니다. 먼저 입원만 시켜 준다면 곧 입원비를 마련해 오겠다고 어머니가 애원하는 모습을 본 록펠러는 가만히 비서를 불러 아무도 모르게 입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 후 소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록펠러는 매우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록펠러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런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며 느낀 흐뭇한 감정이 록펠러를 살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후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으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록펠러의 회고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55세까지 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43년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모으고 쓰라

이 이야기는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푸는 삶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꼭 물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통해 우리가 즐거운 기분을 느끼거나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됩니다. 더구나 자비심이나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늘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이 요즘 과학 실험으로도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성 호르몬이 나와 소화기, 심장, 생식 기능 등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록펠러 역시 자비심을 베풀고 스스로 느낀 충만감 덕분에 몸의 저항력이 강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써야 할 재산에 대해, 도리어 자신이 재산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낭비해 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맞고 어떤 말씀은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으면 우리 삶의 질을 전환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경전 상에 나타나는, 재가자를 상대로 하신 말씀은 물질 위주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되, 쓰는 것도 잘 써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편집실

경전에서 찾은 지혜

원수를 도우면 영원히 안락하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였다. 그때 마갈제국의 아사세왕이 사군(四軍)을 일으켜 구살라국을 공격하자, 바사익왕 또한 사군을 일으켜 대항하여 싸웠다. 이 싸움에서 아사세왕이 이기자 바사익왕의 군사는 패하여 많은 이가 죽고 흩어졌으며, 왕은 홀로 수레를 타고 도망쳐 돌아왔다.

이때 모든 비구가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정사(精舍)로 돌아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쪽에 꿇어앉아 여쭈었다. "부처님, 저희가 오늘 성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아사세왕과 바사익왕이 서로 격전을 벌인 끝에 바사익왕이 패하여 간신히 수레를 타고 도망쳐 사위성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곧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전승(戰勝)하면 원적(怨敵)만 더 많아지고 패전하면 누워도 편치 못하네. 승과 패, 두 가지를 함께 버리면 적정낙(寂靜樂)을 누리며 편히 잠들리라."

그런데 몇 해 뒤 아사세왕이 또다시 사군을 일으켜 구살라국을 공격했다. 이때 바사익왕이 갑절로 사군을 일으켜 맞서 싸우니 이번에는 바사익왕이 승리하고 아사세왕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모두 항복하였다. 바사익왕은 아사세왕의 코끼리와 말, 수레를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을 노획하였으며, 아사세왕을 포로로 잡았다. 그는 포로인 아사세왕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이 사람이 아사세왕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원한을 산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원한을 품고 부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좋은 벗의 아들이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풀어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사익왕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오. 그를 풀어주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대왕의 먼 앞날이 안락하고 요익하도록 하시오."

그때에 세존께서 게송을 설하셨다.

"비록 전투 실력이 뛰어나 저 이를 무찌르고 크게 노획했어도 원수를 도우면 내 힘이 더해지나니 나와 남의 이익을 항상 배로 얻으리."

『잡아함경(雜阿含經)』

지장스님의향유 | 마음의 선율

우리는 마음의 연주자이자 동시에 자기 마음의 감상자

세상은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0~20,000헤르츠(Hz)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규칙을 정해 그 소리들을 언어나 음악, 신호, 소음 등으로 구분합니다. 무엇으로 규정하든 귀에 들리는 소리는 결국 공기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진동한 결과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소리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는 리듬과 선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리듬과 선율을 가진 소리들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를 볼 때 배경 음악은 상당히 큰 효과를 내지요. 만약 소리 없이 공포 영화를 본다면 아마 덤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매 순간 수많은 배경 음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은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백색 소음이 될 수도 있으며, 자연의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존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리를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리가 음악이 되려면 좋은 리듬과 선율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화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음의 연속적인 흐름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화음은 단어에, 화성은 문장에 비유합니다. 악곡의 흐름을 넓게 조망하면 화성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의 소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39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A음을 440Hz로 하는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악기마다 음의 기준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의 기준은 처음부터 고유하게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인간이 정한 약속일 뿐입니다.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많은 악기가 연주될 경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조율합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오보에가 A음으로 가장 먼저 조율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목관, 금관, 현악기 순으로 조율합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 시끌벅적하게 들리는 짧은 악기 소리가 바로 조율하는 소리입니다. 조율을 잘 해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므로 조율은 늘 수시로 해야 합니다.

음악 소리는 하나의 주파수로 표시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많은 소리가 중첩된 상태지요. 마치 수많은 재료를 넣고 푹 삶아 우려낸 국물과도 같습니다.

악기들은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가 지닌 이런 주파수의 집합을 전문 용어로 '포먼트(formant)'라고 합니다. 같은 악기라도 좋은 재료로 잘 만든 악기는 넓은 음역대를 소화하지만, 좋지 않은 재료로 부실하게 만든 악기는 좁은 음역대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먼트 대역이 넓으면 표현이 풍부해지고, 포먼트 대역이 좁으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포먼트 대역이 넓든 좁든 고유의 기본 주파수는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음악의 원리는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몸도 마음도, 세상도 다 일종의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악기마

다 고유한 포먼트 대역이 있듯이 모든 생명과 인간도 고유한 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의 영역으로 한정하면 목소리의 포먼트에 국한되지만,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대비시켜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특징이나 성향, 인식 수준 등도 포먼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또한 음악처럼 다양한 주파수가 중첩되어 마치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기억, 습관, 주변 환경, 몸의 상태, 의도 등 정말로 많은 요소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業, Karma)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저마다의 마음 상태는 결과적으로 매 순간 업의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음악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곧 저마다의 선율인 셈입니다.

음악에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선호하는 대상도 그 장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장르는 크게 정치, 종교, 사회, 직업으로 구분되며 각자의 소질 및 성격 등을 따지면 더 세분됩니다. 음악에서 어떤 악기나 장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나 자연이라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위해 저마다 필요한 소리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화음은 서로 다른 두 소리가 결합하여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보통 세 개 이상의 음이 만들어 내는 조화를 말합니다. 화음이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화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혹은 어떤 환경과 화음을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고음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음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갖가지 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상선(上善)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순리와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괴로움의 근원으로 봅니다.

마음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찾는 이유도 마음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명상이나 공부, 예술, 운동 등 다른 유익한 활동을 통해서도 마음은 조율됩니다. 조율이 잘되면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연주하지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소음과 같은 마음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의 감상자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자기 본연의 소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세상과 불협화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자신이 어떤 마음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지, 조율이 필요한지, 일상에서의 화음은 문제가 없는지, 혹은 인생 차원에서 화성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작곡가들은 곡을 쓸 때 화성을 선율의 배경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배경에 따라 사진 속 인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화성에 따라 선율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형성되고 굳어지는 습관, 성향, 기억을 업(業, Karma)이라고도 부르는데, 업 또한 화성처럼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업(業)의 작용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사회적 사건을 보더라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지요. 작곡가들이 화성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만들듯, 우리 스스로 만든 업의 힘이 결국 삶의 분위기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몸과 마음, 주변 환경과의 화음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마음, 몸, 주변 환경 등 어느 한쪽에 이끌려 가지 않게 되어,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쉽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지혜라는 아름다운 선율도 만나게 되겠지요.

나와 남, 나와 세상과의 화음을 알아차린다면 '무아(無我)'는 더 이상 내가 없다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화음을 이루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세상은 들을 수 있는 소리 외에도 듣지 못하는 무한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텅 빈 것 같지만 본래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텅 빈 충만'은 이런 상태에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가득 찬 울림 속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떨림에 불과합니다.

음악은 소리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의 변화가 흥미를 유발합니다. 같은 소리가 계속 이어지면 지루해서 아마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적 차원에서 '무상(無常)'의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 삶이라고 알고 있는 것 또한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악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 더 커지고 풍부해지지요. 어떤 상태나 상황, 공간, 혹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 또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한순간 내가 일으킨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공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공명이 있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공명보다 반대의 공명이 더 지배적인 듯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악기 연주자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최소 10년 이상, 매일 두 시간 이상씩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매일 한 시간씩 몇 년을 연습하면 즐기는 수준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라는 악기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조율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좀 지루하겠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선율을 즐기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교육원장

담마빠다

스스로 알라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서
바르고 그릇된 것 스스로 알라.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해서
때로는 그냥 듣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 살 어린이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처럼,
이런 평범한 말씀도 그 깊이는 참으로 엄숙하고 무겁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챙김메커니즘

마음챙김 ①
- 보통의 의미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걸음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방송이나 신문 같은 미디어를 통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다 보니,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 단어가 되었다. 단어는 알지만, 뜻은 잘 모르는 그런 단어가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의 의미

그렇다면 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이 단어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음을 전제한다.

하나는 '마음챙김의 대상이 되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챙기는 자아'이다. 이 두 자아의 개념이 없다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음챙김의 대상이 되는 자아'란 무엇인가? 이것은 '일상의 자아'를 의미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가?

하루 종일 보낸 일상이 전부 기억나는가?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상의 자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하루 종일 직장이나 집에서 일을 하며 보낸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들어 놓은 일상에 내가 살고 있을 뿐,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으며, 그제가 지난주의 어느 날인 것 같다.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이 엉켜서 그날이 그날 같아지는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동료나 가족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출근해서 일하고, 중간중간에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다. 돌이켜보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들 속에 일상을 살아가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패턴이 생기고,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 내가 살아간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반복해서 달리는 것처럼 나의 삶은 패턴에 따라 진행된다.

처음엔 다양한 길을 탐색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길만을 살게 되고, 다시 기차 레일처럼 고착화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자아가 바로 '일상의 자아'이고 '관성의 자아'이다. 반복된 패턴의 삶이기 때문에 패턴을 따라서 갈 뿐,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 자아에서 오는 괴로움

문제는 이런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괴로움이 싹튼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갑자기 나의 인식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인식에 들어온 것 중에, 어떤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처음엔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것들이 어느새 덩치를 키워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황량한 고독감, 무거운 우울감, 이유 없는 불안감, 깊은 슬픔, 알 수 없는 분노, 힘없는 무기력함 그리고 복잡해진 생각 등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만들어진 일상적인 괴로움을 품고 살아간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마음 한구석에 피어난 괴로움이 점점 성장하여 어느새 나 자신을 위협하게 되면서,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않고, 탈출해야만 하는, 아니 최소한 숨은 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일상의 역설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두 번째 자아인 '깨어있는 자아'를 찾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괴로움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일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그저 살아갈 뿐인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희로애락 속에서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아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일상적인 삶에 틈이 생기고 괴로움이 조금씩 밀려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오는 삶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이 회의감이 자신에 대해 자각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만 보면 '괴로움'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장치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자아'를 찾으려는 마음이 '마음을 챙기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이 '깨어있는 자아'는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한다. 앞에서 말한 질문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하루를 살아가다가 문득 일어나는 생각, '아~! 사는 게 뭘까?', 혹은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같은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삶에 의문을 가지며 스스로 객관화하는 자아를 '마음을 챙기는 자아'라고 한다.

마음챙김이란 쉽게 말하면 '마음을 챙기는 자아'를 가지고 '마음챙김의 대상이 되는 자아'를 확립해 나가서 '깨어있는 자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인식의 중심을 일상의 자아에서 깨어있는 자아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마음을 챙기는 자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또한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지만,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임 진 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산책

원 웨이 티켓 one-way tiket

최 정 용
시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삶은 편도,
왕복은 없으니 돌아올 수 없네
알몸으로 올라 그대로 내리는,
삶은 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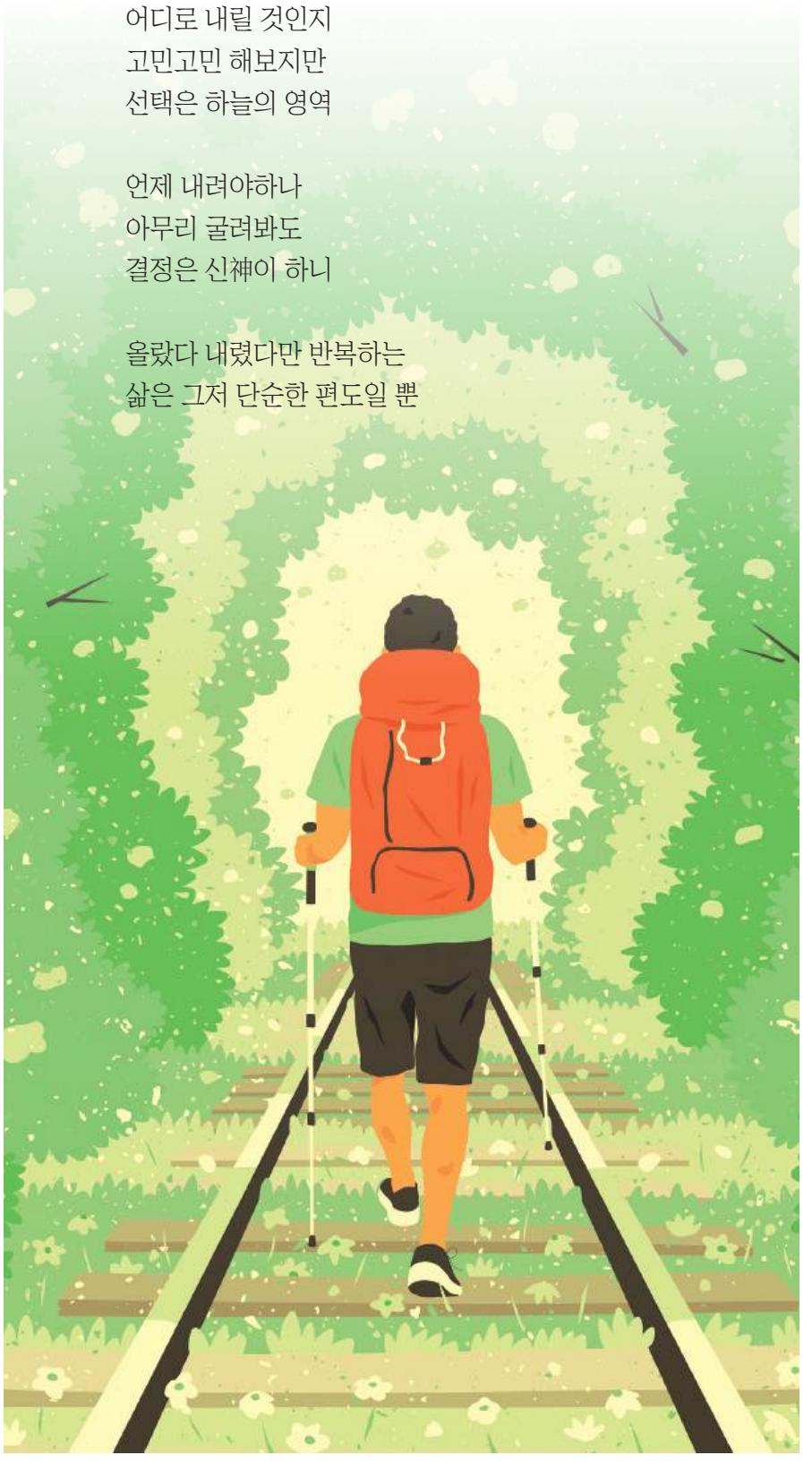
모든 역이 종착역이니
먼저 내린다고 부디 슬퍼말라
철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내릴 문이 왼쪽인지 오른 쪽인지
배우는 시간

어디로 내릴 것인지
고민고민 해보지만
선택은 하늘의 영역

언제 내려야하나
아무리 굴려봐도
결정은 신神이 하니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하는
삶은 그저 단순한 편도일 뿐



고전속으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

"숨겨진 원리를 탐구하고 의미를 찾아 그 효능이 음악이나 독서와 어찌 다르겠는가"

또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다잡아 인성을 수양할 수 있고 숨겨진 원리를 탐구하고 깊은 의미를 찾아내어 지혜를 증대시킬 수 있으니 이러한 수학의 효능이 음악이나 독서와 어찌 다르겠는가!

且習是法者, 其潛心攝慮, 足以養性, 探賾鉤深, 足以益智, 此其功豈異於琴瑟簡編哉!
차습시법자, 기잠심섭려, 족이양성, 탐색구심, 족이익지, 차기공기이어금슬간편재!

- 홍대용(洪大容, 1731~1783), 〈담헌서(湛軒書)〉 '주해수용서(籌解需用序)'

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하지?

많은 사람이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마다, 혹은 수학 성적이 나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질문이다. 물론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깊이 성찰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질문은 아니다. 그저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평균 점수만 깎아 먹는 수학에 대한 미움의 표현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의문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홍대용은 <주해수용>이라는 수학서를 저술하고서 서문에서 수학의 '실용(實用)'을 말했다. 먼저 '회계(會計)'로 글을 시작한다. 지금 쓰는 회계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재정을 담당한 관리들은 당연히 수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수입과 지출 관리, 세금 부과와 수납, 환곡의 운용, 농지의 측량 등 수를 다루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뿐이 아니다. 천문이나 음악에서도 수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즉 수학은 쓸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때부터 산학, 즉 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를 운용하였고, 취재(取才)라는 채용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해 필요한 부서에 임용하기도 하였다.

현대에도 수학의 쓸모는 크다. 사실 옛날보다 훨씬 크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바탕에 수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 글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역시 수학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 "수학은 수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표현하는 정신적 습관을 기르는 법"

그런데 이러한 수학의 실용성이 과연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될까? 홍대용의 시대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적이었다. 지금 시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 사용된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수학의 필요성을 체감할 일은 없다. 그러니 실용성만으로는 수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수학은 그밖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홍대용은 인성의 수양과 지혜의 증대를 수학 공부의 목적 혹은 효능으로 제시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하는 행위는 집중력과 인내를 기를 수 있다. 인성의 수양이다. 답이 나오기까지의 풀이 과정과 적용된 원리를 깊이 사유하여 이해함으로써 논리적인 분석력과 독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지혜의 증대이다.

수학이 만들어낸 현대 문명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수학의 효능이 있어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온갖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능력을 고갈시킨다. 알고리즘은 세상의 다양한 측면보다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그중에는 가짜 뉴스도 많다. 이는 스스로 통찰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마비시킨다. 사람들은 점점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신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미 오래 전에 현대 문명의 폐해를 간파하고 해결책을 탐색했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수학적 사고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실에 관한 가장 확연하고 아름다운 서술은 결국 수학적 형태를 취해야 한다. 산술의 규칙뿐만 아니라 도덕 철학의 규칙도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어서, 하나의 공식이 그 둘 다를 나타낼 것이다.

-Henry David Thoreau, A Week on the Concord and merrimack Rivers, Penguin Classics, 1998, p.291. 에드워드 프렌켈, <내가 사랑한 수학>에서 재인용.

우리가 수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수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주관과 감정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정신의 습관을 기르는 법이다. 그럼으로써 수학은 홍대용이 말한 것처럼 예술이나 인문학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인격과 지성을 도야하는 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머리는 좀 아프겠지만.

최 두 헌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문화유산해설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백제의 전형적인 형태와 문양, 제작 기법 용을 품은 망자亡者의 신발

2009년 고창 봉덕리의 거대한 분구묘(墳丘墓, 봉분과 같은 분구를 조성한 뒤 매장 시설을 만드는 무덤)에서 화려한 금동신발이 출토되었습니다. 마치 큰 언덕처럼 생긴 고창 봉덕리 1호 분구묘 안에서는 여러 매장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금동신발이 발견된 4호 석실은 다행히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신발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원래 모습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삼국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20여 점의 금동신발 중 가장 온전한 형태입니다. 삼국 시대 백제의 전형적인 형태와 문양, 제작 기법이 잘 남아 있는 이 신발은 백제 중앙에서 제작하여 당시 고창 지역 수장에게 내려준 '위세품(威勢品, Prestige goods)'으로 여겨집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발

언뜻 보기에도 보통 신발보다 훨씬 크고 앞코가 뾰족해 마치 배[船]처럼 생긴 이 신발은 매우 독특한 형태입니다. 크고 넓은 신발 바닥에 18개의 뾰족한 징[Spike]을 박았는데, 오늘날의 축구화 바닥과 비슷합니다. 과연 백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신발을 신었을까요?

먼 옛날 삼국 시대 사람들은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귀한 물건들을 무덤에 함께 묻었는데 이를 '껴묻거리(부장품)'라고 합니다. 고창 봉덕리 외에도 화성 요리, 공주 수촌리, 무령왕릉, 익산 입점리, 나주 복암리, 신촌리, 정촌, 경주 식리총, 황남대총 등 여러 유적의 무덤에서 50여 점의 금동신발이 출토되었습니다.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은 묻힌 사람의 발치에서 발견되었는데, 신발 안팎에서 작은 비단 조각이 확인되었습니다. 직물 분석 결과 안쪽에서는 세 종류, 바깥쪽에서는 두 종류의 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직물을 함께 사용한 버선이나 비단 신발을 망자에게 신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깥면에는 '금(錦)'이라고 불리는 매우 고운 조직의 직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권33 잡지(雜志) 제2 '색복(色服)'에는 《당서(唐書)》의 기록을 인용하여 "백제 왕은 소매가 큰 자색 도포와 푸른색 비단[錦] 바지를 입고, 검은 나직(羅織) 관모에 금 꽃으로 장식했으며,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과 같이 높은 신분 계층에서 사용하던 고급 직물인 비단이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깥면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신발 안에서는 사람의 뼛조각도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금동신발이 죽음 이후 망자의 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물건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용과 새, 그리고 사람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은 가로로 긴 두 장의 넓은 금동판과 바닥판을 이어 붙여 만들었습니다. 긴 금동판을 신발의 발등과 뒤축에서 각각 맞닿게 겹친 후 작은 못 여러 개를 박아 고정하고, 옆판 아래 끝부분을 'ㄴ'자 모양으로 접어 바닥 판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또 발목 깃에 해당하는 금속판을 옆판 안쪽에 덧대어 11개의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발목 깃, 양 옆판 각 1장, 바닥 판까지 모두 네 장의 금속판을 결합하여 만든 신발입니다.

신발의 옆면과 바닥을 촘촘한 무늬로 장식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꽃무늬부터 용과 새, 사람 얼굴 등 다양한 무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장식하기 위해 금동 판을 오려내어 여러 무늬를 표현했는데 이를 '투조(透彫)' 기법이라고 합니다. 옆판 위아래에는 불꽃을 형상화한 무늬가 있고, 그 사이에 거북 등껍질 같은 육각형 무늬를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발 바닥 면에도 투조 기법을 사용하여 불꽃무늬와 함께 용, 새, 인면조신(人面鳥身, 사람 얼굴에 새 몸통을 한 상상의 동물)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길이 1.7cm의 징이 박힌 부분을 아름다운 연꽃무늬로 장식하여 신발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바닥면

세밀하고 정교한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의 투조 장식 기법은 삼국 시대 백제인의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화려한 불꽃과 용을 품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을 통해 약 1,500년 전 고대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동신발,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5세기, 길이 32.7cm, 너비 7.7~10.7cm 보물 제2124호, 국립전주박물관, 전주42605, 임혜빈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저작물.

마지막공부

요리책 읽기, 만들기, 맛보기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존재하므로 공空하다

부엌 한쪽에 책이 몇 권 꽂혀 있다. 요리책이다. 요리 명인의 책도 있고, 스님의 책도 있다. 텃밭에서 나는 부식 거리를 맛있게 먹도록 해주는, 아주 요긴한 책이다. 요리책은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든 못하든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필요한 책이다.

40대 초반부터 불교나 명상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다. 안다는 것은 이런 식이었다. 『반야심경』 해설서는 모모 출판사 것이 좋음. 요즘 책에는 명상에 대한 기발한 설명이 있음. 해탈은 『금강경』 몇 장에 있음.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것은 요리책을 읽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황탯국은 전통 요리책에 있음. 장아찌는 아무개 명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음. 저녁밥은 모 요리책 몇 페이지에 있음.

그러다가 스승의 말씀을 들었다. "모든 문화 문명은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불경도 부처도 우리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위한 도구이다." 지당한 말씀이었다. 속이 시원한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독서를 도구로 삼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그 비결은 '최소한의 인문학과 최대한의 사유'였다. 이것저것 인문학 서적을 수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책이든 한 우물을 파듯이 그 메시지를 곱씹고 잘 이해하여 그에 따른 해탈감을 맛보라는 것이다. 모든 감각 인지 과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따르는 법이니 그 느낌을 맛보라는 것이다.

해탈감! 나를 결정적으로 구원해 준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 저 고귀한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해탈'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해탈감'이란 말씀은 그대로 개안(開眼)의 인술(仁術)이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존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느낌이라는 것을 도외시한다면 무엇으로 해탈을 경험한다고 할 것인가. 음식은 그것을 만들어서 맛을 보고 먹어야 비로소 음식이다. 음식은 만들지 않고 요리책 읽기에만 바쁘다면 그런 엉뚱한 일이 있겠는가.

해탈은 용타 스님 저서 <공(空)> 몇 쪽에 있음. 이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존재하므로 공(空)하다. 연기고공(緣起故空)을 씹으면서 점점이 둘러쓰고 있는 실체사고의 억압을 벗어난다. 풀려나고 풀려나 허공처럼 가벼워진다. 해탈이 아니라 해탈감이다. 직박구리가 감을 맛있게 먹고 있다. 그 녀석, 행복하겠다.

유 소 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에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쥬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따뜻한하루

긍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어느 마을 다리 밑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구걸하는 걸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다리 입구 쪽에는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걸인은 그 기념 비석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욕을 해댔습니다.
"에이! 양심도 없는 놈들!
돈 많은 것들이 이것 가지고 생색내기는…"

그러나 다른 걸인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 아닌가.
우리에게 그늘도 만들어 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니 말일세.
나도 언젠가 이 사람들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 다리 옆에 새로 큰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비석에 새겨진 이름 중엔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그 걸인의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넝마주이를 시작으로 열심히 일하여
마침내 건재상을 경영하는 부자가 되어
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욕했던 다른 걸인은
여전히 그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25. 7. 9〉

지혜의 뜨락

심원사 대종불사

너는 걷지 못하여도 눈이 성하고 나는 보지 못하여도 다리가 성하니…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업(컬래버)이 새로운 흐름이다. '협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면 새로운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종종 <탈무드>에 나오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힘을 합쳐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일화를 예로 든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보면서도 손이 닿지 않아 한탄했다. 그러자 시각장애 친구가 "내가 업어 줄 테니 사과를 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여 맛있는 사과를 함께 따 먹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협동 이야기가 있다.

고려 제7대 목종(穆宗, 980~1009) 때 강원도 철원 보개산 심원사라는 절에서 대종불사(大鐘佛事)를 하게 되어 스님들이 시주를 받고 있었다. 각 고을 부인들은 쌀뿐만 아니라 깨진 가마솥과 주발대접, 부러진 젓가락 등을 찾아내어 열심히 시주하였다. 이때 보개산 밑 대광리에 시각장애인 이덕기와 지체장애인 박춘식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죽마고우였다. 그들은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자고 다짐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여보시오, 시주님들. 적선공덕(積善功德) 많이 하시오. 한 물건 시주하면 만 배의 복을 받으니, 부처님 가피로 모든 재앙 소멸하고 현생에 복을 얻어 수명장수 이루소서."라고 외치며 지나갔다. 덕기가 이 소리를 듣고는 시주하고 싶었지만 가난하여 시주할 쌀도, 쇠붙이도 없었다. 그들은 궁리 끝에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화주승처럼 길에 나가 시주를 받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걷지 못하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좋은 방법이 있네. 두 몸이 한 몸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자네는 걷지 못해도 눈은 성하고, 나는 보지 못해도 다리가 성하니 내가 자네를 업고 다니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 내가 길을 알려 줄 테니, 자네가 나를 업고 다니며 시주를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3년 동안 방방곡곡 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 한 끝에 쇠붙이를 모아 화주승에게 건넸고, 화주승은 감격하여 그들을 더 격려하고 감싸주었다. 마침내 종이 완성되고 절도 중수되어 회향재(廻向齋)와 대종 준공식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보개산 심원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연천으로 가면 고개가 없지만, 계곡을 끼고 가야 해 물을 건너야 했다.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물을 건너기는 어려웠다. 두 사람은 대광리에서 바로 태산준령을 넘기로 했다. 산에 오르니 구슬 같은 땀방울이 비 오듯 떨어지고 입에서는 불꽃처럼 뜨거운 숨결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화주승이 가르쳐 준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외우며 간신히 산마루에 올랐다. 그때 춘식이가 외쳤다.

"저길 보게, 부처님이 나투셨네."
"부처님께서 어디에 나투셨나?"

부처님은 오색구름에 싸여 허공으로 둥실둥실 높이 올라가며, 큰 빛을 두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내려 비추었다. 덕기와 춘식은 날이 밝도록 부처님께 절하며 서로 붙들고 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부터 그 큰 고개를 부처님을 뵌 고개라 하여 '불견령(佛見嶺)', 부처님의 광명이 크게 내려 비친 덕기, 춘식이 사는 마을을 '대광리(大光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보개산 심원사 대종불사기(寶蓋山 深遠寺 大鐘佛事記)>에 나온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설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이덕기가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 박춘식이 벌떡 일어섰다는 결말 때문인데, 이는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 두 사람이 부처님을 접하고 그렇게 느꼈다고 해석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두 장애인의 불사(佛事) 이야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둘이 힘을 모으면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방 귀 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솟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살다보면 | 지화장엄(紙花莊嚴)

꽃잎 하나하나 섬세한 손길로 수행과 예술의 결정체를 피우다

또 우담바라가 피었다.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또?' 하면서 놀라는 분이 많겠지만, 죄송스럽게도 그건 진짜 우담바라가 아니라 2~3년 전부터 우리 집 주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한 물체를 이르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주방 붙박이장 문짝 표면에 흩뿌려지듯 맺혀 있는 물방울 같은 것이니, 꽃인 우담바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경건에 가깝다. 처음에는 여러 문짝 중 유독 그 하나의 문짝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탐탁지 않았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약간의 점성 때문에 제때 닦아내지 않으면 며칠이고 그 모양 그대로 문짝 표면에 매달려 있었다. 찜찜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답이 영 신통치 않던 차에….

그런데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 "우와! 우담바라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매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친구의 문자였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본 적이 없으니, 우담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듯 여겨지기도 했다. 지난겨울, 부처님의 진신 치아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고성 금강산 건봉사 적멸보궁에 우담바라가 피어 봄이 무르익도록 지지 않고 있었다던가. 부처님 출현이나 성인의 등장을 알리는 신성한 꽃 우담바라. 문득 생각을 바꾸니 정체불명의 물체가 불법의 번성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우담바라가 되어 내 마음에 피어나는 듯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마음에 우담바라를 피운(!) 덕분일까. 종이로 만든 꽃이긴 하지만 얼마 전, 동해 무릉계곡 초입에 있는 두타산 삼화사(三和寺)에서 우담바라를 보게 되었다. 모란, 연꽃, 국화, 작약, 부들, 다리화, 수국, 그리고 우담바라까지. 불단 가득 종이로 만든 지화(紙花)가 만개해 있었다. 지난 4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화장엄(紙花莊嚴)'이라고 했다. 지화장엄은 사계절 내내 불단에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독특한 불교 의례 문화 중 하나로, 삼화사 지화장엄은 신도들이 중심이 된 전승 방식으로 불교 문화유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화는
> 불교신앙과 의례의
> 정수를 담은
> 수행물이자 불심 표현
>
> 부처님 전에 올리는
> 불교 장엄의 상징물

'지화장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절 마당 나무 그늘에 앉아 휴대전화를 열었다. 정리하자면, 부처님께 향·등·꽃·과일·차·쌀을 올리는 육법공양(六法供養) 중 하나에 속하는 '지화장엄'은 종이로 만든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의 일환이자 불교 고유

의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지화(紙花)는 종이로 만든 꽃을 말하고, 장엄(莊嚴)은 이를 아름답게 장식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을 뜻한다.

'지화(紙花)'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꽃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불자의 수행이고, 그렇게 피어난 지화는 불교 신앙과 의례의 정수를 담은 수행물이자 불심의 표현이며, 부처님 전에 올리는 불교 장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천연 한지를 자연 염색하고 재단한 후 꽃에 따라 각기 다른 주름을 잡고(살잡기), 저마다의 색과 모양으로 꽃을 피우고(작봉하기), 그 꽃을 조화롭게 꽂는(난등치기) 작업까지. 꽃잎 하나하나 섬세한 손길로 막대한 공력을 들여야 비로소 수행과 예술의 결정체인 한 송이 지화가 완성된다.

'장엄(莊嚴)'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불국토를 꾸미는 일을 뜻한다. 향이나 꽃 등을 불전에 올리는 것, 엄숙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장식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공덕을 쌓아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화는 의례의 성격과 불단의 상단, 중단, 하단, 영가단 등 장엄 위치에 따라 그 종류와 의미가 달라지는데, 극락정토의 상징적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교 의례와 관련이 깊은 만큼 영혼을 천도하는 영산재(靈山齋),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수륙재(水陸齋), 살아서 미리 자신의 재를 지내는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비롯해 사십구재의 회향 날 중생을 고통 없는 피안의 극락정토로 인도한다는 상상의 배 반야용선(般若龍船)이나 죽은 사람이 타는 가마를 올려놓는 영가단(靈駕壇) 등에도 형형색색의 지화가 장엄된다.

삼화사 지화장엄은 2001년 삼화사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가 부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600년 전통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떠난 민심을 수습하여 건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즉위 4년(1395)에 왕실 주관으로 치르기 시작했다. 매년 10월 열리는 수륙대재에는 수천 송이의 지화가 장엄되는데, 삼화사 지화장엄의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지화장엄보존회와 연등회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도 중심의 독특한 전승 방식과 불교 의례에서의 활용성, 지화의 예술성과 수행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한다. 삼화사를 비롯해 불교계에 전해지고 있는 전통 지화는 10여 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척 안정사에서 전승되는 지화는 100여 종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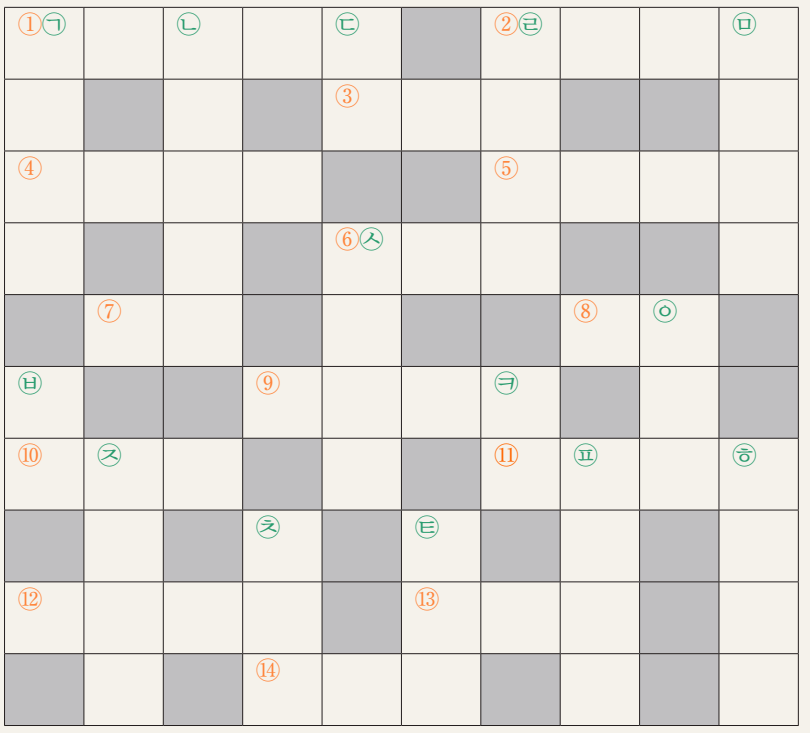
이렇듯 꽃은 불교와 관련이 깊다. 마야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 싯다르타를 낳았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막 태어난 싯다르타가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뗀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지 않던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말 대신 한 송이 꽃을 들어 올려 법을 전했으니, 그것이 그 유명한 염화미소요, 불보살상을 모신 연화대 역시 더러운 진흙 속에 피면서도 맑고 향기로움을 잃지 않는 연꽃의 형상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우담바라까지. 연꽃이 수많은 꽃을 피워 올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일깨워 주는 반면, 하늘에서 내려온 길조의 꽃이라는 우담바라는 세간에 존재하지 않는 전설의 꽃이라는 말 그대로 숨은 듯 드러나지 않는 고요함으로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상서로운 꽃이 아닐는지.

나는 아직도 붙박이장 문짝에 생기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지화장엄에 깃든 깊은 신심의 향기 덕분에 더 온전해진 우담바라다. 가만히 서서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본다. 조용한 몸짓으로 꽃대를 밀어 올리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좋은 세상을 향해 향기를 더하고 있는 우담바라가 거기 있다.

이 옥 경

수필가 · 방송작가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① 총지종에서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 수행하는 법
"나무 삿다남 삼먁삼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② 1995년 창간된 불교총지종 종단 발행 신문
③ 사주로 한 사람의 운명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동양철학의 한 학문
④ 임진왜란의 화의가 깨지고 1597년 왜군이 조선을 재침공한 사건
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⑥ 총지종의 교도 조직 명칭
⑦ 불교에서 사부대중이 정해진 날에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는 의례
⑧ 흙탕물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불교를 상징하는 꽃
⑨ 갈림길이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없다는 사자성어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라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뜻. ○○지탄
⑩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⑪ 사종수법 중 구하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외우는 진언, ○○○ 사바하
⑫ '리자 부인'이라는 뜻을 지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⑬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
⑭ 불교에서 말하는 도리천에 있는 달콤하고 신령스런 약수

세로 열쇠

㉠ 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정신
㉡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
㉢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승직자로부터 받는 불명
㉣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자치기구
㉤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네 가지 도구(붓, 먹, 종이, 벼루)
㉥ 삼복 가운데 마지막에 드는 복날
㉦ 1871년 강화도를 침공한 미국과 조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
㉧ 꽃으로 장식한 상여
㉨ 머루 또는 등나무처럼 덩굴이 발달하는 나무
㉩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
㉪ 다이아몬드, 흑연, 목탄 등에 존재하는 화학원소(C)
㉫ <무정>, <마의태자>등을 집필한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문인
㉬ 하나하나의 모든 구절
㉭ 기운이 없고 풀이 죽은 상태

생각의 열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

반구대 암각화가 보여준 것, 거친 생존의 환경 속 기쁜 삶의 모습

그곳의 소식을 다시 들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고대 암각화. 고래 43마리와 바다 생물, 호랑이와 사슴 등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대략 3,000년 전 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살던 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까지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40여 년 전, 그 그림들을 코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어미 귀신고래는 새끼를 등에 업은 채 바다 위를 헤엄치고 있었고, 향유고래와 혹등고래, 바다의 포식자인 솔피와 물개가 살아 움직이는 동해를 볼 수 있었다. 배에 탄 고래 사냥꾼들은 작살을 들고 생존을 위해 풍파와 싸우고 있었다. 바다가 반구대에서 더 멀리 물러난 후 사람들은 바뀐 사냥감인 멧돼지와 표범을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춤추는 자신들의 모습도 새겨두었다.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 동국대학교 대학원생이 발견하여 세상에 알렸고, 그런저런 인연으로 전면 탁본이 대학 본관 입구에 걸려 있었다. 덕분에 본관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3,000년 세월을 넘어 인사하는 그들과 만날 수 있었고, 볼 때마다 감동을 넘어 전율과 영감을 받았다. 그려진 고래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은 그들이 생각보다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한때 암각화를 다시 떠올린 기억이 있다. 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발견 당시 이미 세워진 사연댐 때문에 바위의 풍화가 가속되어 당장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이야기도 들렸다. 몇몇 그림은 벌써 희미해졌으며, 몇 해 전 수학여행 차 들른 10대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해서 걱정은 더 높아졌었다. 반면에 훼손의 도가 그다지 깊지 않다는 항변도 있었다.

암각화를 보전하기 위해 내놓는 처방들도 제각각이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편은 댐의 수위를 낮춰 암각화가 수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나 울산의 식수 조달에 차질이 온다는 지적에 모두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암각화 앞에 물막이벽을 세우자는 주장도 있었다. 한발 더 나아가 바위를 수지로 덮거나, 전면을 고스란히 떼어내서 보존하자는 과격한 이야기도 나왔다. 보존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바위를 억지로 떼어냈다는 주장도 있고, 탁본과 모형 제작을 위해 암각화에 상처를 주었다는 말도 들렸다. 30년간 진행된 인위적 마멸이 3,000년 자연의 힘보다 더 컸다.

암각화는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됐고, 지난 7월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억을 간직한 유산인 것이다. 단순히 바위 위 그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흔적, 역사, 감동, 그리고 미래의 나침반이 자취를 잃는 일이다. 정치, 경제적 이유, 문화적 광기, 현실적 편리함 등으로 인류의 집단기억을 파괴하는 일은 일상이 되고 말았다. 불과 한 세대도 지탱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수천 년 역사, 삶의 흔적들을 기억 속에서 지우는 일이 유행한다.

종교와 문화, 권력의 우월함으로 배타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행히도 이 시대의 특징이 됐다. 울주의 바위벽에서, 위구르 신장(新疆), 보스니아의 마을과 성소(聖所)에서 소멸로 내몰리는 것들은 결국 약하고 가난하며 자신의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에 있는 타시룬포 사원에서 벽 하나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다. 황금빛 아름다운 그림의 흔적이 검은 칠 속에 희미하게 갇혀 있었다. 인간의 지혜와 자비심을 표현한 거대한 벽화는 문화대혁명 시기, 역사의 반동과 봉건의 흔적으로 간주되어 검게 칠해졌고 그 위에 붉은 혁명의 구호가 적혔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난 후 그 야만의 흔적을 지우려 칠을 벗겨냈지만, 옛 그림을 되살릴 수도, 참혹한 폭력을 감출 수도 없었다. 한때 무지한 권력을 휘둘렀던 자들은 아마 두고두고 교훈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타시룬포의 황금빛 벽에 칠을 명령한 자나 물 부족을 이유로 반구대 암각화의 수몰을 지속하려는 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일깨우고 광기를 막을 힘이 있다. 그것은 지성이다.

한 세대는 겨우 30년을 견디고, 인간은 고작 그 세대가 세 번 지날 때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한 세대 지성의 몰락은 수천 년 인류가 지켜온 가치를 철저히 농락할 수 있다. 오직 잘살아보자며 공동체와 그 속에 깃든 문화를 짓뭉개고 지내온 지난 세대의 형벌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쌀은 있으나, 그것을 먹고 힘내 살아야 할 내일의 희망은 잃었다.

반구대 암각화가 보여준 것은 거친 생존의 환경 속에서도 기쁜 삶의 모습이었다. 고래와 사슴과 인간이 함께 살고 힘겨워도 춤추는 환희가 있었다. 생존의 방법을 가르치고, 서로가 먹이를 나누며 하늘 아래 몸을 낮추어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이 담겨 있다. 선대의 인류가 바위와 동굴 속에 그림을 남긴 여러 이유 중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뜻도 있었다고 한다. 자연과 세상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속에는 있는 것이다.

김 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종자〉 외

소통의 한의학

콩의 변신

메주 익던 겨울, 약이 되던 밥상

예전에는 12월 초순 쯤 되면 집집마다, 콩을 삶아서 메주를 쑤었다.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메주를 만들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으니 1976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어머니께서 잘 씻어 충분히 불려두었던 메주콩을 솥에 넣고 장작불을 지펴서 푹 삶아 냈다. 메주콩을 삶을 때는 콩국수용으로 사용하는 콩 삶기보다 훨씬 푹 익혀야 하기에 시간도 많이걸리고 콩물이 넘치지 않게 불도 잘 조절해야 한다. 불을 때고 화력을 조절하는 것은 주로 내 몫이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단순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지루하기도 해서 처음에 강한 불로 한번 끓이고 그 뒤에 약한 불로 은은하게 익히고 뜸을 들여 주는 불 때기 작업을 대충대충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메주콩 삶기를 끝냈다.

이제 익힌 콩을 식기 전에 절구에 넣어 잘 치대어 메주 모양이 이쁘게 나오게 틀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절구로 삶은 콩을 치대는데 웬일인지 콩이 잘 치대어지지 않고 잘 뭉쳐지지 않았다. 내심으로는 불때기를 잘 못해서 그런 거 같아 죄책감이 많이 들었지만, 뭔가 콩이 품질이 안좋아서 그런거 같다고 어머니에게 둘러대며, 메주를 만든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서는 어린 아들의 소행을 알고도 아마 모른 척 해주었던 듯하다. 어쨌든 메주를 만들었고 그 메주가 적당히 마르면, 짚으로 가느다란 새끼 줄을 꼬아서 따뜻한 방 구석에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적당히 발효되어 유익한 곰팡이가 잘 자랄 때까지 겨울 내내 메주는 우리 식구들과 한방살이를 하였다.

학술적으로는 메주는 여러 곰팡이균과 고초균 등이 번식해서 발효되며, 이 균들이 유익한 아미노산과 효소를 만들어 이후 된장국과 간장의 원자재가 되는 것이다. 또 겨울에는 푹 삶은 콩을 적당한 양의 짚과 함께 소쿠리에 밭쳐서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두어 발효시켜서 낫토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잘 발효된 낫토는 쿰쿰한 냄새도 있지만, 늘어지는 균사를 가지고 있고, 적당량을 따뜻한 쌀밥에 파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었다. 우리들의 밥상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되고 우수한 단백질과 효소의 공급원이 되었던 콩 발효 제품은 한의약에서도 주요한 약재로 쓰인다. 담두시(淡豆豉)가 그것이다. 담두시가 약재로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상한론>이다.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子 必反復轉倒 心中懊惱 梔子豉湯主之,
발한토하후 허번부득면 약극자 필반복전측 심중오뇌 치자시탕주지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傷寒論>
약소기자 치자감초시탕주지 약구자 치자생강시탕주지 <상한론>

치자와 담두시를 함께 넣은 처방으로 상한 병을 잘못 치료하여 발생한 오증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나온다. <상한론>은 장중경의 저작으로 대략 190년대 말경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조들은 이미 약 2,000년 전에 콩을 발효시켜 음식으로 먹었을 뿐 아니라, 인체를 치료하는 주요한 약재로도 활용하였던 것이다. 담두시는 6월 전에 검은콩을 뽕잎이나 개똥쑥을 달여 낸 물로 불린 후, 제조법에 따라 여러 번 발효시켜낸 약재이다. <명의별록>에 담두시는 맛은 쓰고 기는 차갑다. 상한병으로 생긴 두통과 한열을 치료한다. 번조, 만민, 허로, 숨참, 종아리가 시리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상한론의 치자시탕은 치자와 담두시 두 가지 약재로 구성된 탕약으로, 감모, 인플루엔자등으로 열나며 괴롭거나, 열병후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응용하여, 위산과다, 위통, 구내염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서 콩을 발효하여 메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은 우리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음식 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치자는 음식의 색깔을 내거나, 다치거나, 열이 있을 때 상용하는 약재이다. 음식에 사용되고, 일상생활에 사랑받던 두 가지의 재료가 만나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재로 활용되고 있다. 오래도록 사용하여 그 안전성을 알고 있기에 약재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재료이기도 하다. 우리 선조들은 모든 음식들을 조리할 때 양념을 더하여 음식의 맛을 더 내고, 몸에도 더욱 이롭게 하였다. 여기에서 양념은 약념(藥念)에서 전화된 말로서, 음식을 조리할 때 맛도 내지만,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다.

우리의 밥상은 음식을 먹어 소진된 기운을 보충하기도 하고, 몸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즐겨 먹던 된장국과 간장으로 맛을 낸 여러 탕과 국, 그리고 고기나 생선회를 먹을 때 빠지지 않고 같이 먹던 된장이나 쌈장은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도 하고, 미지의 독소를 해독하며 우리를 지켜왔지 싶다. 된장을 즐겨 먹는 나로서는 이런 음식을 개발한 선조들의 지혜에 언제나 경탄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정 은 철
나무와 숲 한의원 원장

걷는자의기쁨

보보상의 숨결을 따라,
울진 십이령을 걷다

삶의 무게 짊어진 선질꾼 발길
노래와 바람처럼 길 위에 머물러

두천리에서 출발하여 여기를 건너면서 길은 시작된다

내성행상불망비 정자각

십이령길을 걷는 사람들

울진 십이령은 단순한 오솔길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바지게에 물품을 지고 넘나들던, 땀과 눈물로 굳어진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고갯길이다.

울진 흥부장을 출발해 봉화 소천장에 이르는 길목에 놓인 열두 고개를 십이령이라 부른다.

보부상들이 산소금과 어물, 미역 등을 바지게에 가득 싣고 울진·죽변·흥부장에서 출발하여 봉화 내성장, 춘양장, 소천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양곡과 포목을 실어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길이었다.

지금은 '금강소나무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내게는 '십이령 길'이라는 이름이 더 애틋하다. 발밑의 흙과 숲, 고개 하나하나에 보부상들의 숨결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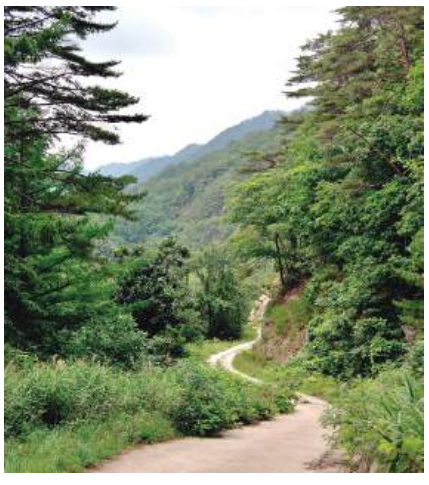
길을 걷다 산허리를 한 굽이 돌아들면, 바지게를 세워두고 잠시 숨을 돌리던 옛 선질꾼들이 내게 다가와 다정히 말을 거는 듯하다. 어느새 김주영 선생의 소설 <객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고단한 행상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는 나를 본다.

두천1리 주막거리

여정은 두천1리 주막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은 보부상들이 모여 물목을 점검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출발을 준비하던 장소다. 그들이 넘나들던 열두 고개는 단순한 고개가 아니라, 생사의 경계이기도 했다. 곳곳에 도사리던 화적 떼는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 긴장 속에 그들의 바지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돌다리를 건너 정자각에 걸음을 멈춘다. 정자각 안에는 '내성행상불망비(乃城行商不忘碑)' 두 기가 있다. 철판에 글자를 새긴 철비로, 한 기는 '내성행상반수권재만불망비(乃城行商班首權在萬不忘碑)', 또 다른 한 기는 '내성행상접장정한조불망비(乃城行商接長鄭韓祚不忘碑)'다. 이는 내성에 살던 접장 정한조와 안동 출신의 반수 권재만이 보부상들의 안전한 통행을 도운 은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다. 그 은공은 지금도 길을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듯하다.


바릿재에서 내려가는 길

효자비와 선질꾼의 첫 고개 바릿재

정자각을 뒤로하고 산기슭을 오르자 곧 심천범 내외의 효행을 기린 효자비각이 나타난다. 말래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바릿재 입구 언덕 위에 있는 이 정려각은 부부의 효행을 함께 기리므로 '쌍효각'이라 부른다. 중풍과 신경통을 앓는 아버지를 50여 년간 한결같이 공양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부의 효심이 이 고갯길에 깃든 듯하다.

능선을 따라 50분쯤 오르니 '바릿재'에 닿는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소 등에 물건을 '바리바리' 실어 넘나들던 고개다. 고단한 이들이 지나는 고개마다 소리 잘하는 선질꾼은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 한 가락 불러주었을 것이다.

"가노 가노 언제 가노, 열두 고개 언제 가노

지그라미 우는 고개, 이 고개를 언제 가노"

장평 들녘과 주막터

바릿재를 내려서면 장평이다.

'긴 들판'이라는 뜻의 이곳엔 옛 주막터가 남아있다. 이곳은 오가는 사람들이 막걸리 한 사발에 숨을 돌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다, 주모는 탁배기 한 사발이라도 들고 가라며 수작이지만 바지게를 진 선질꾼에게는 그 한 사발조차 사치였을 것이다.

찬물내기 – 허기진 배를 달래며

합수 나달을 지나, 산양이 산다는 능선을 따라 걷는다. 그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피해 숨어드는 산양은 여전히 이 산속 어딘가에 살아 있으리라.

구불구불한 임도를 지나니 찬물내기 쉼터에 닿는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나와 직접 비빔밥을 내어주는, 이 길의 몇 안 되는 인심 있는 쉼터다. 주린 배를 달래고 흘린 땀을 식힌다. 하지만 다시 이어지는 산길은 더욱 험하다.

샛재 – 새도 쉬어가는 고개

가파른 고개를 헉헉거리며 오르면 샛재다. 옛 이름은 '조령(鳥嶺)', 말 그대로 새도 쉬어가는 고개라 하여 샛재라 불린다. 산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는 바람은 등골을 타고 스며들며 마음까지 씻어 내린다.

선질꾼들도 이쯤에서 목을 축이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이 고개를 어서 넘게…."

샛재를 지나면 조령성황사가 나타난다. 보부상들은 이곳에서 성황신께 제를 지내며 무사안녕과 가족의 평안을 빌었다. 이 사당은 그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스며든 공간이다. 걷는 자 또한 조용히 두 손 모아, 그들의 기도를 되뇌어본다.

너삼밭재와 저진터재

이후 길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너삼밭재는 경사가 완만하고 고요한 고개다. 이름은 '넓은 밭이 너삼(성기고 드문드문)' 펼쳐진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저진터재 앞

그 길을 지나 마지막 고개인 저진터재에 다다른다.

'저진터'는 '젖은 터'라는 뜻이다. 숲이 빽빽해 햇볕이 들지 않아 항상 축축했던 이 고개는, 선질꾼들이 바지게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던 숨결의 자리였다.

바릿재, 샛재, 너삼밭재, 저진터재를 넘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한결 넉넉해졌다. 나는 탁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선질꾼이 되어 그 노래를 불러본다.

"방천생을 눈뜬 고개, 이 고개를 넘는구나

가노 가노 언제 가노, 열두 고개 언제 가노

지그라미 우는 고개, 이 고개를 언제 가노

꼬불꼬불 열두 고개, 조물주도 야속하다…"

삶의 무게를 짊어진 선질꾼들의 발자국이 노래처럼, 바람처럼, 지금도 이 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조용히, 그들의 노래를 다시 읊조려 본다.

박 성 기
자유 여행가
도서출판 깊은샘 대표
저서 〈걷는 자의 기쁨〉

내가 사랑한 동시

한정동의 '굴레 벗은 말'

우리말과 글 사용 못 하던 시기 '자유를 달라'는 한마디 외침

굴레 벗은 말

한정동

살진 풀도 싫소 싫소
늘 먹는 걸요.
외양간도 싫소 싫소
늘 있는 데요.
뫼뿌리에 닿고 뛰는
굴레 벗은 말.

산에 가면 높아 좋다
껑충 뛰고요
들에 가면 넓어 좋다
달아뺍니다.
멋있게도 뛰며 닿는
굴레 벗은 말.

빨가숭이 나도 나도
굴레 벗은 말.
백두 금강 태백 한라
모두 내 차지
거침없이 뛰며 놀을
내 땅이라네.

이 동요시 '굴레 벗은 말'은 방정환이 주간으로 있던 개벽사의 자매지 '어린이'가 1930년 2월 20일에 발행한 8권 2호(통권 72호), 16~17쪽에 당시의 문법, '굴네 버슨 말'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항일시다.

이 시가 발표되던 1930년은 광주학생사건이 전국 학생독립운동으로 파급되던 때였고, 김구 등에 의해 한국독립당이 창립되던 해였고, 한용운 등에 의해 불교계의 독립운동단체 만당(卍黨)이 조직되던 해였다. 이청천 등이 한국독립군을 조직하던 때였고, 신간회에서 김병로를 회장으로 선출하던 해였다.

이러한 독립운동에 맞추어 우리의 동시 문단에서 항일시가 만세를 외치며 태어났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오늘의 문학 연구자들은 총독부의 원고 사전검열이 있던 그날의 잡지에서 어떻게 이런 항일시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신기하게 여길 뿐이다. 또한 문학 연구자들은 일제 40년의 여러 항일시에서 따오기 할아버지의 항일시 '굴레 벗은 말'이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제 40년 우리는 굴레를 쓰고 있었다. 주장과 표현은 물론, 생활 그 자체에서 말하기, 숨쉬기, 걷는 일에까지 굴레가 채워져 있었다. 우리말을 할 수 없었고, 우리글을 배울 수가 없었다. 일제가 만들어 씌운 굴레가 그러했다. 철저한 식민지 동화(同化) 정책의 굴레였다. 그러나 이것을 굴레라고 했다간 콩밥 신세였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굴레를 쓰고 있다. 벗겨라!' 하고 소리친 시가 '굴레 벗은 말'의 시구(詩句)다. 이 시의 주제는 '자유를 달라!'는 한마디였다. 시에서 내세운 캐릭터는 굴레를 벗은 말이 아니라 굴레를 쓴 말이다. 그 목소리는 '굴레 벗고 싶다', '벗겨라', '굴레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 벗게 해다오'이다.

이런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살진 풀과 외양간을 벗어나 뫼뿌리로 달리고, 들로 달리면서 높은 산, 넓은 들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이 시를 항일시로 의미를 강화한 것은 '백두(白頭)·금강(金剛)·태백(太白)·한라(漢拏)'의 네 개 산 이름과 '내 차지' '내 땅'이라는 두 개의 시어다. 야무지게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한라산을 내 땅으로 챙기고 있다. '빨가숭이 나도 나도/ 굴레 벗은 말/ 백두 금강 태백 한라/ 모두 내 차지/ 거침없이 뛰며 놀을/ 내 땅이라네.' 시의 결구(結句)만 외워도 힘이 솟는다.

신 현 득
아동문학가, 시인

* 한정동(韓晶東)이라면 동요 '따오기'(윤극영 작곡)를 떠올린다. 따오기 울음에 곁들여 저세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동요 '따오기'는 초등교육을 거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애창하는 노래다. 그래서 그의 애칭이 '따오기 할아버지'였다. 따오기 할아버지 한정동에게는 동요 '따오기' 외에도 우리 모든 국민이 알아두어야 할 항일시(抗日詩)가 있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5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법선	6/23	10,000
	김병석	7/17	10,000
관음사	신막심	7/18	20,000
국광사	진여	7/21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6/23	10,000
	수증원	6/23	10,000
	밀공정	6/23	10,000
	법지원	6/23	10,000
	일성혜	6/23	10,000
	사홍화	6/23	10,000
	선도원	6/23	10,000
	안주화	6/23	10,000
	진일심	6/23	10,000
	최상관	6/23	10,000
	연등원	6/23	10,000
	자선화	6/23	10,000
	승효제	6/23	10,000
	주신제	6/23	10,000
	총지화	6/23	10,000
단향사	지홍	7/24	10,000
덕화사	법상인	7/17	20,000
동해사	김진화	7/7	10,000
	송인근	7/21	10,000
만보사	강명순	7/3	10,000
	김정희	7/21	10,000
밀인사	박길선	7/10	10,000
	덕광	7/10	20,000
	황갑용	7/13	10,000
법성사	남혜	6/23	10,000
	장정숙	7/7	10,000
	신말심	7/7	10,000
법천사	반야심	6/30	10,000
법황사	인선	6/23	10,000
	정계월	6/23	10,000
	박미경	6/25	10,000
		7/25	10,000

볏고을어린이집	이민선	7/1	8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6/25	10,000
	무명씨	7/4	50,000
	박필남	7/15	10,000
	하명순	7/25	10,000
삼밀사	묘홍	7/24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신찬호	6/25	10,000
	나석원	6/25	50,000
	이태윤	6/25	10,000
	박현정	6/25	20,000
	신찬호	7/25	10,000
	이태윤	7/25	10,000
	박현정	7/25	20,000
	나석원	7/25	50,000
선립사	지명	7/6	10,000
세곡키움센터	최선해	6,7/25	20,000
	남경식	6/29	10,000
수계사	자심관	6/23	10,000
수인사	법상	7/17	20,000
시법사	혜광	7/6	10,000
	이순영	7/6	2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6/26	80,000
양지동복지회관	서영주	6/26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6/27	80,000
운천사	보명심	7/17	10,000
	우인	7/17	10,000
	반야화	7/20	30,000
	무명씨	7/22	5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6/25	80,000
	연명구	6/30	20,000
	하재희	7/25	80,000
	연명구	7/25	20,000
자석사	도우	7/15	10,000
	지현	7/15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6/26	80,000

정각사	안한수	7/6	10,000
	탁상달	7/9	10,000
	노점호	7/11	10,000
	법일	7/21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6/26	80,000
총지사	정연경	7/2	10,000
	유은혁	7/2	10,000
	김정환	7/8	10,000
	백귀임	7/10	10,000
	신현태	7/10	10,000
	김병관	7/13	10,000
	록경	7/15	20,000
혜정사	최영례	6/27	10,000
	조성기	7/11	20,000
화음사	강동화	6/25	10,000
	송영근	7/1	10,000
	송하나	7/1	10,000
	송호영	7/1	10,000
	박대영	7/1	10,000
	박대성	7/1	10,000
	홍춘자	7/1	10,000
	무명씨	7/2	10,000
	이성희	7/15	10,000
	정영미	7/15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7/10	80,000
위드다르마 후원	이혜성	6/26	5,000
	이인성	6/26	5,000
	이수영	6/25	10,000
	진여	7/2	10,000
	남해	7/21	10,000
	총지화	7/21	10,000
	자선화	7/21	10,000
	법공	7/21	10,000
	자행정	7/21	10,000
	이수영	7/25	10,000

권 선 문

만보사 승강기 불사

총지종의 발전과 교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스승님과
교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만보사는 모든 교도들이 편안히 머물고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보사의 스승과 모든 교도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분들께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원당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보사 승강기 불사를 발원합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있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원력을 이루고
그 공덕이 우리 모두에게 회향되리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모금기간 총기 54년(2025년) 7월 1일 ~ 8월 31일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2068-1602-3(민순분)
권선문의 만보사 042)255-7919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합장